문학 개념 이해·적용 06

고전 시가의 상황과 주제

대치동 재우쌤

옛말의 뜻을 문장 속에서 확인하고, 화자의 상황과 마음을 근거로 고전 시가의 주제를 읽습니다.



설명 카드	E01~E22 · 고어와 문장 관계 → 소재와 문맥 → 주제 판단
문항	개념 적용 Q01~Q41 · 짧게 쓰기 Q42~Q45 · 종합 적용 Q46~Q61
부록	판단 근거 총정리 · 고전 어휘 사전 · 빠른 정답 · 정답과 해설

이 자료의 예문·문항은 학습을 위해 새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고전 작품을 사용한 자료 A에는 작가·작품명·출전을 따로 밝혔습니다. 고어를 넣은 짧은 학습 문장은 해당 어휘를 익히기 위한 것이며, 옛 문법 전체를 재현한 원문이 아닙니다. 이 안내는 새로 작성한 설명·문항·해설·그림에 적용되며, 출전을 밝힌 고전 원전의 권리를 새로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대치동 재우쌤 | 010-9524-4849 | https://leessaem.com/ | https://blog.naver.com/leessaem84

본 자료는 직접 제작한 학습 자료입니다. 개인 학습을 위한 열람·인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무단 복제·재배포·수정 후 재배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차례

묶음	확인할 질문
1. 고어와 문장 관계	E01 고전 시가를 읽을 때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E02 이어 적기와 아래아는 어떻게 읽나요? E03 '믈·됴타·즘생'은 글자만 바꾸면 되나요? E04 현대어와 비슷한 고어는 그대로 읽어도 되나요? E05 조사 하나가 왜 해석을 바꾸나요? E06 어미에서 소망·염려·질문·이유를 어떻게 구별하나요?
2. 소재와 문맥	E07 꽃·바람·눈만 보고 계절과 정서를 정해도 되나요? E08 '백구·홍진·해'에는 정해진 뜻이 있나요?
3. 임금·나라·부모·백성	한눈에: 고전 시가 주제 지도 E09 충의·우국지정·연군지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E10 부모를 그리워하면 모두 풍수지탄인가요? E11 애민·수탈 고발·정치 현실 비판은 무엇을 보나요?
4. 자연 속 삶과 가치	E12 강호한정·유유자적·풍류는 같은 말인가요? E13 가난하면 안빈낙도, 만족하면 안분지족인가요? E14 물아일체는 자연을 좋아한다는 뜻인가요? E15 연하고질·천석고황은 정말 병에 걸렸다는 말인가요? E16 산속에 살면 속세에 미련이 없는 건가요? E17 전원은 언제나 쉬고 즐기는 공간인가요?
5. 늙음·현실·사랑	E18 백발은 탄로, 아름다운 대상은 예찬인가요? E19 전란의 비애와 삶의 애환은 어디서 구별하나요? E20 연정·이별의 정한·원망은 모두 함께 나타나나요?
6. 함께 읽고 근거 확인하기	E21 한 작품에 주제가 두 가지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E22 〈보기〉와 어휘 풀이를 어디까지 활용하나요?

개념 적용 Q01~Q41 · 짧게 쓰기 Q42~Q45 · 판단 근거 총정리 · 종합 적용 Q46~Q61 · 고전 어휘 사전 · 빠른 정답 · 정답과 해설

앞선 편 개념 다시 보기

개념	이번 편에 적용할 뜻
화자·작가	화자는 시에서 말하는 존재이고, 작가는 실제로 작품을 쓴 사람이다.
정서·태도	정서는 느끼는 마음이며, 태도는 대상을 대하거나 상황을 받아들이는 자세이다.
관습적 상징	공동체에서 익숙하게 공유하는 의미를 지닌 상징이며, 작품 안에서의 쓰임을 확인한다.
설의	질문의 형식으로 이미 전하려는 생각을 강조하는 표현 방법이다.
대조	대상이나 상황의 차이를 맞세워 드러내는 방법이다.
감정 이입	화자의 감정을 대상도 느끼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이다.
근거에 따른 해석	작품의 말과 주어진 자료를 연결하여 의미를 읽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단정하지 않는다.

E01 고전 시가를 읽을 때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한 줄 답 누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마음을 말하는지, 문장 끝까지 이어 읽습니다.

먼저 볼 것	확인할 질문	놓치면 생기는 오독
말하는 이·대상	누가 누구를 걱정하거나 그리워하나요?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와 떠난 임을 뒤바꿈
상황	이별·가난·은거·전쟁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나요?	자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가롭다고 판단함
조사·어미·부정	누구에게, 무엇보다, 하고 싶은가, 하지 않는가?	소망을 이미 이루어진 일로 바꿈
정서·태도	어떤 마음이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그리움을 원망이나 체념으로 바꿈

예를 읽어 봅시다. “임은 멀리 계시나 나는 그 뜻을 잊지 않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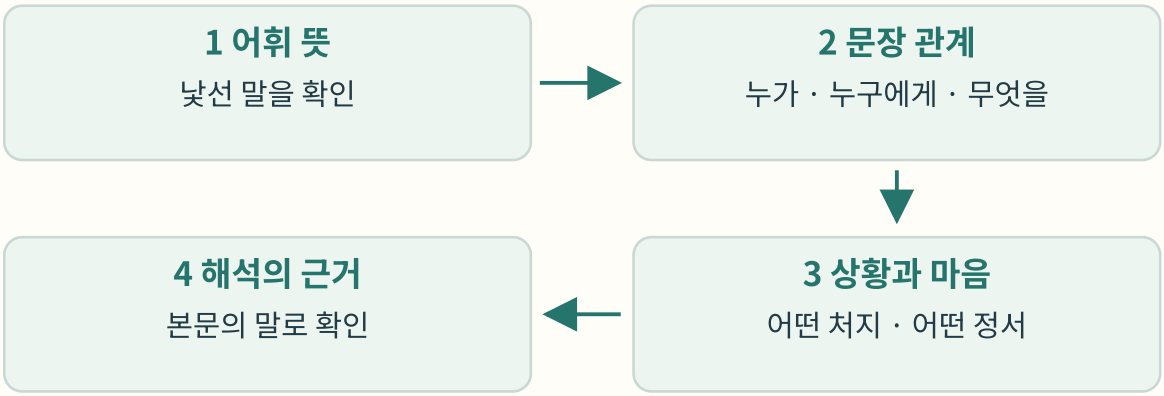
문장 속 근거	읽을 수 있는 내용	아직 확정할 수 없는 내용
임은 멀리 계시나	임과 떨어져 있음	임이 반드시 임금이라는 해석
나는 … 잊지 않으리	잊지 않겠다는 화자의 의지	임도 화자를 그리워한다는 해석

흔한 착각 한 단어의 뜻을 알면 주제도 정해진다

바로잡기 어휘 뜻을 문장 관계와 연결해야 합니다.

확인 질문 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이며, 글의 어느 말에서 확인되나요?

D01 낱말에서 주제까지



연결 문항 Q01 · Q02

E02 이어 적기와 아래아는 어떻게 읽나요?

한 줄 답 낱말의 형태와 조사를 나누어 보고, 옛 표기는 낱말 전체의 뜻과 함께 확인합니다.

용어	뜻	읽을 때 확인할 것
연철(이어 적기)	앞 음절의 받침을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적는 방법. 받침 있는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어미가 올 때 나타남	옮겨 적힌 받침을 되짚어 낱말과 조사·어미를 나눔
분철(끊어 적기)	낱말의 형태를 밝혀 받침을 앞 음절에 남겨 적는 방법	낱말과 조사·어미의 경계를 살핌
아래아(·)	옛한글의 모음 글자	오늘날 대응하는 모음과 낱말의 뜻을 따로 확인함

표 ① 이어 적기와 끊어 적기

이어 적기	끊어 적기(비교용)	낱말 + 조사	오늘날
바ᄅᆞ매	바ᄅᆞᆷ애	바ᄅᆞᆷ + 애	바람에

‘바ᄅᆞ매’의 ‘매’에 있는 ㅁ을 앞말의 받침으로 되짚으면 ‘바ᄅᆞᆷ’과 조사 ‘애’가 보입니다. 끊어 적기 칸은 같은 말을 두 방식으로 비교한 것이며, 특정 원전의 표기를 인용한 것은 아닙니다.

표 ② 아래아의 서로 다른 대응

옛 표기	오늘날 대응	아래아에서 확인할 것
ᄀᆞᄅᆞ치다	가르치다	한 낱말 안에서도 첫째 ㆍ는 ㅏ, 둘째 ㆍ는 ㅡ에 대응
ᄒᆞᆰ	흙	ㆍ가 ㅡ에 대응
ᄒᆞ다	하다	ㆍ가 ㅏ에 대응
ᄀᆞᄅᆞᆷ	강	모음만 바꾸지 말고 ‘강’이라는 낱말 뜻도 확인
ᄒᆞ마	이미·벌써	‘하마’로 읽는 것만으로 뜻을 알 수는 없음

비유로 이해하기 **받침의 옆 칸 이사**

‘바ᄅᆞᆷ’의 받침 ㅁ이 뒤 칸으로 이사해 ‘애’와 함께 ‘매’에 적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ㅁ을 원래 칸에 되짚어 놓으면 ‘바ᄅᆞᆷ + 애’가 보입니다.

비유의 한계 이 비유는 글자를 적은 자리의 이동까지만 맞습니다. 실제 물건이 움직인 것이 아니며, 낱말의 뜻이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흔한 착각 모양이 낯선 글자는 오자이다

바로잡기 옛 표기일 수 있습니다. 원문을 지우기 전에 어휘 풀이를 확인합니다.

확인 질문 지금 나눈 두 부분은 낱말과 조사로 뜻이 통하나요?

D02 이어 적힌 받침 되짚기



‘매’의 첫소리 ㅁ을 앞말의 받침으로 되짚습니다.

이어 적기	끊어 적기·비교용	오늘날
바ᄅᆞ매	바ᄅᆞᆷ애	바람에

표기 위치를 되짚는 것이며, 낱말의 뜻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연결 문항 Q03 · Q04 · Q42

E03 ‘믈·됴타·즘생’은 글자만 바꾸면 되나요?

한 줄 답 익숙한 소리 대응은 읽기의 단서로 쓰되, 실제 낱말의 뜻으로 확인합니다.

옛말	현대 대응	변화 이름·소리 대응(참고)	확인할 점
믈	물	원순 모음화: ㅁ·ㅂ·ㅍ 뒤의 ㅡ가 ㅜ로 바뀌는 변화	‘믈’의 낱말 뜻도 확인
됴타·둏다	좋다	구개음화와 관련된 ㄷ → ㅈ, 이후 ㅛ → ㅗ의 대응	조타·조ᄒᆞ다·좋다(깨끗하다)와 구별
즘생	짐승	즘 → 짐과 생 → 승을 나누어 살핌	낱말 전체를 하나의 변화 이름으로 설명하지 않음
녀다	가다·지나다·살아가다	두음 법칙은 첫소리 대응의 단서	‘녀다 → 여다’로 바꾸어 뜻을 풀이하지 않음

이 대응들은 **서로 다른 변화의 예**입니다. 모두 같은 규칙으로 설명하거나 어느 글에서나 같은 방식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단어 첫머리의 ‘녀-’가 현대의 ‘여-’와 대응하는 경우가 있어도, ‘녀다’의 뜻까지 그

방법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 예: '됴타'(좋다)와 '조타'(깨끗하다)는 모양이 닮았지만 다른 낱말입니다. '물빛이 조타'는 '물빛이 깨끗하다'입니다. 발음이 닮았다고 두 낱말을 합치지 않습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뜻풀이의 문을 여는 열쇠 꾸러미**

'믈 → 물' 같은 소리 대응은 낯선 말을 읽어 볼 열쇠 하나입니다. 한 열쇠가 다른 자물쇠까지 모두 열지는 못하듯, '녀다'를 '여다'로 바꾸어도 뜻은 풀리지 않습니다.

비유의 한계 이 비유는 대응마다 쓰이는 자리가 다르다는 점까지만 맞습니다. 열쇠가 돌아가는 느낌처럼 익숙하게 읽힌다는 이유로 정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주어진 어휘 풀이와 문맥을 함께 확인합니다.

흔한 착각 두음 법칙을 적용하면 고어 뜻을 모두 알 수 있다

바로잡기 소리 대응과 뜻풀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질문 현대어로 바꾼 뒤에도 문장의 뜻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나요?

D16 소리 대응은 뜻풀이의 단서

단서 찾기
믈 → 물
됴타 → 좋다

→

어휘 풀이·문맥 확인
주어진 뜻을 넣어 읽고
문장 속 의미와 맞는지 판단

녀다 → 여다?
첫소리만 바꾸어서는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어휘 풀이의 '가다·지나다' 등을 문맥에 적용합니다.

익숙한 소리만으로 뜻이 맞다고 확정하지 않습니다.

연결 문항 Q04 · Q05 · Q06 · Q46

E04 현대어와 비슷한 고어는 그대로 읽어도 되나요?

한 줄 답 모양이 비슷해도 뜻이 다를 수 있으므로 대상의 처지와 앞뒤 말을 함께 봅니다.

고어	이 편에서 확인할 뜻	잘못 연결하기 쉬운 뜻
괴다	사랑하다	물이 고이다
어리다	어리석다	나이가 적다
어엿브다	불쌍하다	예쁘다
여름 / 녀름	열매 / 여름 계절	둘 다 계절
듣다·듯다	떨어지다	언제나 소리를 듣다
하다 / ᄒᆞ다	많다·크다 / 하다	두 말을 같은 뜻으로 읽음. 자료 A (가)에서 직접 확인
가없다 / 수이	끝이 없다 / 쉽게	현대어 모양만으로 짐작함

뜻풀이를 적용한 예: “먹을 것 없는 백성이 어엿브다.” → 백성이 **불쌍하다**는 마음입니다. 외모를 예찬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뭇가지의 여름이 익었다.”에서 ‘여름’은 익는 대상인 **열매**로 읽습니다. 이 낱말 하나가 여름 계절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예전 이름표의 설명 읽기**

익숙한 물건도 오래된 전시 설명에는 오늘날과 다른 이름이나 뜻이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엿브다’도 지금의 ‘예쁘다’를 떠올리기 전에 당시의 ‘불쌍하다’라는 뜻으로 읽습니다.

비유의 한계 이 비유는 옛말을 그 시대의 뜻으로 읽는다는 점까지만 맞습니다. ‘어엿브다’와 ‘예쁘다’는 역사적으로 이어진 말이므로 전혀 관계없는 낱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흔한 착각 ‘듣다’는 고전에서는 언제나 ‘떨어지다’이다

바로잡기 소리를 듣는 뜻도 문맥에 따라 가능합니다. 사전에서 본 한 뜻으로 모든 용례를 고정하지 않습니다.

확인 질문 이 뜻을 넣었을 때 누가 무엇을 하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D03 고전에서 읽을 뜻

여름	녀름
열매 가지에 달려 익는 대상	여름 계절 계절을 나타내는 말

어엿브다	≠	오늘날 예쁘다
고전에서: 불쌍하다		오늘날: 아름답다

어엿브다와 예쁘다는 역사적으로 이어진 말입니다.

지금 읽는 고전에서는 당시의 뜻을 확인합니다.

연결 문항 Q06 · Q07 · Q08 · Q46

E05 조사 하나가 왜 해석을 바꾸나요?

한 줄 답 조사는 부르는 대상·말을 받는 상대·비교 기준처럼 낱말 사이의 관계를 알려 줍니다.

형태	문법 이름	현대어 풀이	읽을 때 묻는 말
도곤·라와	비교의 부사격 조사	~보다	무엇을 비교 기준으로 삼나요?
ᄃᆞ려·손ᄃᆡ	상대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에게	누구에게 말하거나 행동하나요?
애·에·예·ᄋᆡ·의	장소·시간의 부사격 조사로 쓰이는 형태	~에	앞말이 장소·시간인가요?
하	높여 부르는 호격 조사	~이시여	바로 앞의 누구를 부르나요?

‘애·에·예’는 앞말의 모음에 따라 모양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양성 모음 뒤에는 ‘애’, 음성 모음 뒤에는 ‘에’, ㅣ 뒤에는 ‘예’가 쓰입니다. 모든 조사 ‘의’가 장소·시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므로 문장 속 관계를 확인합니다.

조사가 아니지만 함께 볼 말

형태	문법 이름	뜻·기능	확인할 점
하	부사	매우	뒤에 오는 상태의 정도를 강하게 나타냄

형태	문법 이름	뜻·기능	확인할 점
-곰	강세 접미사	앞말의 뜻을 힘주어 나타냄	이 편에서는 강조 용법을 살핌

관계 비교: '너도곤'은 **너보다**입니다. 비교 기준은 '너'입니다. '너에게'로 바꾸면 비교 관계가 전달 관계로 바뀝니다. '님하'의 '하'는 높여 부르는 호격 조사이고, '하 슬프다'의 '하'는 '매우'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우희' 나누기: 우ㅎ(위) + 의(부사격 조사) → 우희(위에). '우ㅎ'은 조사와 결합할 때 ㅎ이 드러나는 옛 명사입니다. '희'를 통째로 하나의 조사라고 외우지 않습니다. 시간 표현과 연결된 '우희'는 문맥에 따라 '전에'로 풀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께 볼 말: '다히'는 '쪽'으로 풉니다. 'ᄀᆞ니와'는 '물론이거니와'처럼 앞 내용을 인정하며 뒤 내용을 잇습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낱말 사이의 관계 표지판**

'너보다'의 '보다'는 비교 기준을, '너에게'의 '에게'는 행동을 받는 상대를 가리키는 표지판과 같습니다. '님하'의 '하'는 높여 부르는 대상을 알려 줍니다.

비유의 한계 이 비유는 조사에 따라 관계가 달라진다는 점까지만 맞습니다. 같은 표지판처럼 보이는 조사도 용법이 여럿일 수 있으므로 앞뒤 말을 함께 봅니다.

흔한 착각 옛글의 '의'는 모두 '~의 것이다'라는 뜻이다

바로잡기 '~에'로 읽는 용법도 있으므로 문장 관계를 확인합니다.

확인 질문 비교 기준과 행동을 받는 상대를 바꾸어 읽지는 않았나요?

D04 조사가 알려 주는 관계

비교의 부사격 조사

너도곤 = 너보다 — ‘너’가 비교 기준

상대의 부사격 조사

너 손ᄃᆡ = 너에게 — ‘너’가 행동을 받는 상대

높여 부르는 호격 조사

님하 = 임이시여 — ‘임’이 높여 부르는 대상

하(매우)는 부사, -곰은 이 편에서 강세 접미사 용법입니다.

연결 문항 Q09 · Q10

E06 어미에서 소망·염려·질문·이유를 어떻게 구별하나요?

한 줄 답 어미의 뜻을 읽고, 그 말이 문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문장 끝에서 확인할 기능

어미	이 편에서 확인할 자리·기능	주의
-고져··고쟈	문장 끝의 소망 표현: ~하고 싶다	뒤의 말에 이어지는 용법도 있으므로 모든 쓰임을 종결 어미로 고정하지 않음
-ㄹ셰라	문장 끝의 염려 표현: ~할까 두렵다	감탄형과 모양이 비슷해도 구별
-ㄹ샤··ㄹ셔··ㄴ뎌	감탄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감탄한다고 반드시 기쁜 것은 아님
-녀··뇨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실제 질문인지 설의인지 문맥으로 판단

어미	이 편에서 확인할 자리·기능	주의
-ㄴ다	주어가 2인칭(너)일 때 묻는 의문 용법	‘너는 … 모르ᄂᆞᆫ다’는 ‘너는 … 모르느냐’. 자료 A (나)와 연결
-잇가··잇고	상대를 높이는 의문 표현	묻는 형식과 질문의 의도는 구별

함께 볼 연결 어미 — 문장 중간에서 이유를 이음

어미	문법 이름·자리	기본 기능
-ㄹ시··ㄹ씨	연결 어미·문장 중간	~므로: 앞 내용을 뒤 내용의 까닭·이유로 연결

풀이 비교: ‘만나고져’는 만나고 싶다는 소망입니다. ‘헤어질까 두렵다’는 이별에 대한 염려입니다. 둘 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향할 수 있지만, 바라는 일과 걱정하는 일은 다릅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갈림길의 도착 표지판**

‘임을 만나…’까지만 들으면 다음 길을 알 수 없습니다. ‘만나고 싶다’이면 소망, ‘만날까 두렵다’이면 염려, ‘만났다’이면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어미는 문장이 어느 길로 가는지 알려 주는 표지판과 같습니다.

비유의 한계 이 비유는 어미가 문장의 기능을 가르는 단서라는 점까지만 맞습니다. 이유를 잇는 연결 어미는 문장 중간에도 있고, 감탄의 어미만으로 기쁨·슬픔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흔한 착각 의문형이면 답을 모르는 것이다

바로잡기 질문 꼴로 생각을 강조하는 설의도 있습니다. 앞선 편의 설의 판단을 함께 적용합니다.

확인 질문 이루어진 일인가요, 바라는 일인가요, 걱정하는 일인가요? 앞뒤 내용을 이유로 잇고 있나요?

D05 어미의 기능과 자리

문장 끝에서 확인할 기능

소망

-고져·-고쟈
~하고 싶다

염려

-ㄹ셰라
~할까 두렵다

감탄

-ㄹ샤·-ㄹ셔·-ㄴ뎌
감탄 ≠ 반드시 기쁨

의문

-녀·-뇨·-ㄴ다·-잇가·-잇고
-ㄴ다: 주어가 너일 때
질문 형식 ≠ 반드시 실제 질문

문장 중간의 이유: 연결 어미

-ㄹᄉᆡ·-ㄹᄊᆡ → ~므로: 앞 내용을 뒤 내용의 이유로 이음

-고져·-고쟈는 뒤의 말에 이어지는 쓰임도 있습니다.

어미의 모양과 문장에서 놓인 자리를 함께 확인합니다.

연결 문항 Q11 · Q12 · Q48 · Q56

E07 꽃·바람·눈만 보고 계절과 정서를 정해도 되나요?

한 줄 답 어휘는 계절을 짐작하는 단서이고, 화자의 정서는 그 대상을 대하는 말에서 확인합니다.

계절을 살피는 어휘	뜻
도화·행화·두견화·이화	복사꽃·살구꽃·진달래꽃·배꽃
녹양·세우·동풍	푸른 버들·가는 비·동쪽 바람(문맥에서 봄바람)
하운·녹음	여름 구름·짙은 나무 그늘
실솔·황운	귀뚜라미·누런 구름 또는 누렇게 익은 곡식의 비유
금수(錦繡)	수놓은 비단 → 비단처럼 곱게 물든 산천
백설·삭풍·은산	흰 눈·매서운 북풍·눈 덮여 은빛으로 보이는 산

꽃과 버들 등은 봄, 하운과 녹음은 여름, 귀뚜라미나 익은 곡식은 가을, 눈과 매서운 북풍은 겨울을 살피는 단서입니다. 다만 **가는 비는 다른 계절에도 내리고, '금수'는 언제나 가을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금수'는 단풍 든 가을 산을 가리킬 때가 많지만 꽃이 핀 봄 산천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묘사된 풍경과 문맥으로 계절을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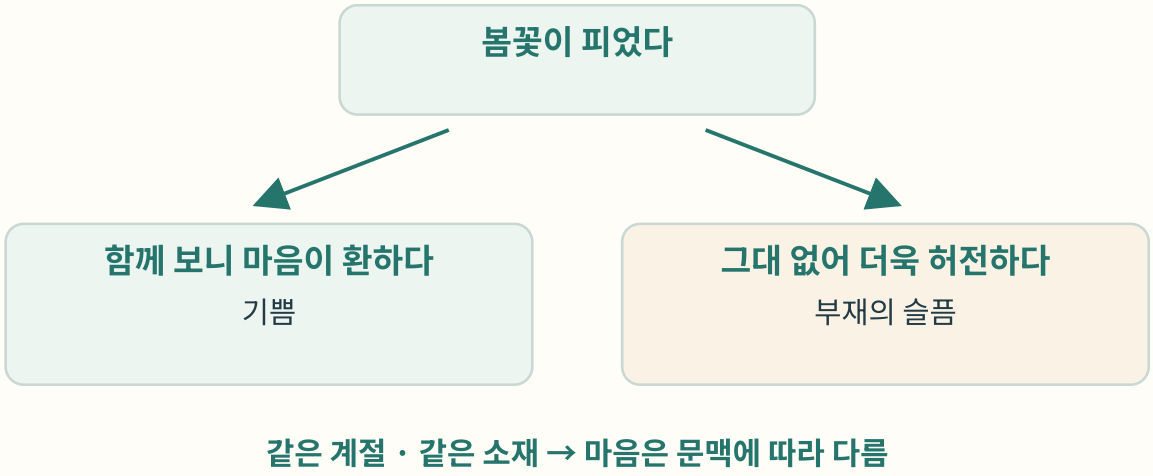
같은 소재	화자의 말	확인되는 정서
봄꽃	"함께 보니 마음이 환하다."	기쁨
봄꽃	"그대 없이 또 피니 더욱 허전하다."	부재의 슬픔

흔한 착각 봄이면 기쁨, 겨울이면 슬픔이다

바로잡기 계절과 정서는 자동으로 짝지어지지 않습니다.

확인 질문 계절의 근거와 정서의 근거를 각각 짚을 수 있나요?

D06 계절의 근거와 정서의 근거



연결 문항 Q13 · Q14 · Q54

E08 ‘백구·홍진·해’에는 정해진 뜻이 있나요?

> **한 줄 답** 관습적으로 연결되는 뜻을 떠올릴 수 있지만, 작품의 문맥과 주어진 자료로 확정합니다.

소재	관습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뜻	함께 확인할 것
백구·청산·강호·어옹	자연과 가까운 삶	실제로 여유를 즐기는가, 생업에 매달리는가
홍진·풍진·인세	세속의 삶·세상	떠나려는가, 다시 돌아가려는가
해·북쪽·궁궐	임금·조정과의 관련	충성·연군의 말이나 〈보기〉가 있는가
눈·서리	시련·역경	견딤과 변치 않음 같은 말이 연결되는가

글자 풀이 홍진(紅塵): 붉은 먼지 / 풍진(風塵): 바람과 먼지. 고전 시가에서는 어지러운 세상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백구는 흰 갈매기, 어옹은 늙은 어부입니다. 실제 풍경의 대상이면서 다른 뜻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단어가 나왔다는 사실과 상징으로 기능한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예: “해가 떠서 마당이 밝아졌다.”만으로 해를 임금이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임금을 그리는 이가 해를 바라본다”는 문맥이나 〈보기〉가 더해지면 그 관련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신호등과 장식의 빨간빛**

신호등의 빨간빛은 멈춤을 뜻하지만, 장식의 빨간빛까지 멈춤 신호는 아닙니다. '해'나 '백구'도 익숙한 뜻을 떠올리되, 지금 그 뜻으로 쓰였는지 살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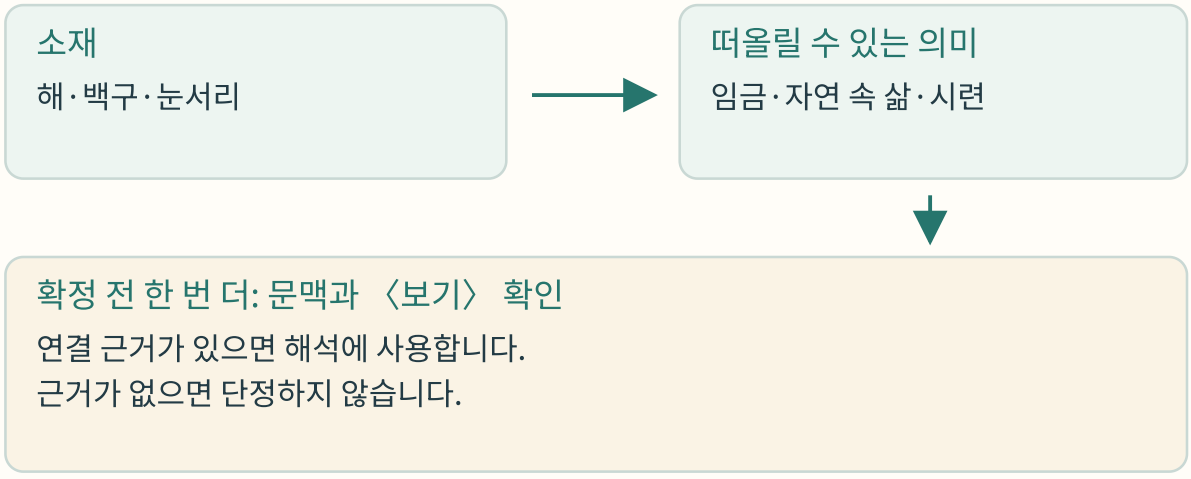
비유의 한계 이 비유는 같은 모습도 쓰인 자리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까지만 맞습니다. 문학의 관습적 의미는 신호등 규칙처럼 언제나 고정된 뜻이 아닙니다.

흔한 착각 백구가 있으면 화자는 반드시 한가롭다

바로잡기 어획량(잡은 물고기의 양)을 걱정하는 어부 옆에도 백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 질문 관습적 의미를 뒷받침하는 말이 지금 지문에도 있나요?

D07 관습적 의미는 확인할 후보



연결 문항 Q15 · Q16 · Q23 · Q37 · Q49 · Q51

묶음 3~5 한눈에 · 고전 시가 주제 지도

D00 고전 시가 주제 지도

화자의 마음은 누구(무엇)를 향하나요?

임금·나라 E09
충의: 충성과 의리
우국지정: 나라 걱정
연군지정: 임금 그리움

부모 E10
효: 섬기려는 마음·실천
풍수지탄: 부모 사후
못다 한 효도의 후회

백성·세상 E11
애민 정신: 돌봄·안타까움
수탈 고발: 부당한 빼앗음
정치 현실 비판: 정치의 잘못

자연 속 삶 E12~E17
강호한정·유유자적·풍류 E12
안빈낙도·안분지족 E13
물아일체 E14
연하고질·천석고황 E15
속세 단절·미련 E16
현실적 전원생활 E17

나의 삶 E18·E19
탄로: 늙음의 한탄
전란의 비애: 전쟁의 슬픔
삶의 애환: 삶의 슬픔·기쁨

사랑하는 임 E20
연정: 사랑하는 마음
이별의 정한: 이별의 슬픔·한
원망: 상대를 탓함

어느 대상에도 가능: 찬양·예찬 E18
대상의 훌륭함·아름다움을 높이 기리는 마음

가지 고르기 = 향하는 대상 + 드러낸 마음

한 작품이 두 가지 이상의 묶음에 걸칠 수 있습니다. E21

E09 충의·우국지정·연군지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한 줄 답 지키려는 의리, 나라에 대한 걱정, 임금에 대한 그리움 가운데 어디에 초점이 있는지 봅니다.

판단 식

충의 = 임금·나라 + 충성과 의리를 지키려는 마음

우국지정 = 나라의 형편 + 걱정

연군지정 = 임금(〈보기〉·문맥으로 확인) + 그리움

개념	뜻	핵심 근거의 예
충의	임금·나라에 대한 충성과 의리를 지키려는 마음	“위태로워도 충성을 버리지 않겠다.”
우국지정	나라의 형편을 걱정하는 마음	“나라의 앞날이 어두워 잠들지 못한다.”
연군지정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	“멀리 계신 임금을 다시 뵙고 싶다.”

글자 풀이 우국지정(憂國之情) = 우국(나라를 근심함) + 지정(~하는 마음). 연군지정(戀君之情) = 연군(임금을 그리워함) + 지정(~하는 마음). 충의(忠義) = 충성 + 의리.

한 작품에 세 마음이 함께 드러날 수 있습니다. 유배지에서 임금을 그리워하면서 어지러운 나라를 걱정하고 충성을 다짐할 수도 있습니다.

‘임’의 확인: ‘임’은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고, 작품의 맥락에 따라 임금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임’이라는 말만으로 연군지정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보기〉가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제시한다면 그 정보와 지문을 연결합니다.

흔한 착각 유배되었으면 임금을 원망한다

바로잡기 처지가 곧 정서는 아닙니다. 화자가 실제로 드러낸 그리움·원망·충성 등을 읽습니다.

확인 질문 누구를 향한 마음이며, 걱정·그리움·다짐 중 어떤 말이 근거인가요?

D08 충의 · 우국지정 · 연군지정

충의
충성과 의리
지키려는 다짐

우국지정
나라의 형편
걱정하는 마음

연군지정
멀리 있는 임금
그리워하는 마음

↓

한 작품에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임'의 정체는 본문과 〈보기〉에서 확인



I02 대상과 떨어져 있는 상황을 떠올리는 삽화입니다. 무엇을 그리워하는지는 본문의 말과 〈보기〉에서 확인합니다.

연결 문항 Q17 · Q18 · Q43 · Q50 · Q51 · Q52 · Q53

E10 부모를 그리워하면 모두 풍수지탄인가요?

한 줄 답 풍수지탄은 부모가 돌아가신 뒤, 살아 계실 때 다하지 못한 효도를 한탄하는 경우입니다.

판단 식

효 = 부모의 은혜 + 정성껏 섬기려는 마음·실천

풍수지탄 = 부모 사후 + 못다 한 효도의 후회

효를 살아 계신 부모에 대한 섬김으로만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풍수지탄은 그중에서도 부모 사후의 못다 한 효도를 한탄하는 마음입니다.

개념	뜻	판단에 필요한 내용
효	부모의 은혜를 알고 정성껏 섬기려는 마음과 실천	보살핌·감사·봉양하려는 뜻
풍수지탄	부모 사후, 못다 한 효도를 슬퍼하고 한탄함	돌아가신 부모 + 뒤늦은 효도의 아쉬움

글자 풀이 효(孝): 부모를 섬김. 풍수지탄(風樹之歎) = 풍수(바람과 나무) + 지탄(~에 대한 탄식). 이름의 유래는 아래 비유와 연결합니다.

예	판단
“멀리 계신 어머니께 따뜻한 옷을 보내리라.”	효도의 마음. 사후의 한탄은 제시되지 않음
“어머니 돌아가신 뒤에야, 약 한 첩 못 드린 일이 사무친다.”	풍수지탄
“돌아가신 아버지의 웃음이 그립다.”	사별의 그리움. 이 말만으로 못다 한 효도의 한탄까지 확정하기는 어려움

비유로 이해하기 **바람 앞의 나무와 기다려 주지 않는 시간**

옛말에는 “나무는 고요히 있고 싶어도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봉양하고 싶어도 부모가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뜻의 말이 있습니다. 내 바람만으로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을 나무와 바람에 빗댄 말입니다.

비유의 한계 이 이야기는 풍수지탄이라는 이름의 유래를 이해하는 데 쓰입니다. 작품에서는 ‘부모 사후’와 ‘못다 한 효도의 후회’가 함께 드러나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흔한 착각 부모가 보고 싶다는 말이면 풍수지탄이다

바로잡기 생사와 후회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질문 지금의 슬픔에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음'이 들어 있나요?

D09 풍수지탄에 필요한 두 근거

부모가 돌아가심
사후의 상황

+

효도를 다하지 못함
뒤늦은 후회와 한탄

→ **풍수지탄**

부모가 그립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I03 부모가 남긴 옷을 보며 기억하는 상황을 떠올리는 삽화입니다. 풍수지탄 여부는 부모 사후라는 상황과 못다 한 효도의 후회를 글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연결 문항 Q19 · Q20 · Q58 · Q60 · Q61

E11 애민·수탈 고발·정치 현실 비판은 무엇을 보나요?

한 줄 답 백성을 향한 마음, 부당하게 빼앗는 행위, 정치의 잘못 가운데 드러난 내용을 구별합니다.

판단 식

애민 정신 = 백성을 돌보는 입장 + 백성의 고통에 대한 안타까움·보살핌

수탈 고발 = 권력자의 부당한 빼앗음 + 그것을 드러냄

정치 현실 비판 = 정치의 잘못(간신·부패·그릇된 정치) + 비판

개념	초점	근거의 예
애민 정신	임금·관리·선비 등이 백성을 돌보는 입장에서 그 고통을 안타까워하고 보살피려는 마음	고을을 맡은 이가 굶는 백성을 걱정하고 구휼을 바람
수탈 고발	권력자가 백성의 재물·노동 등을 부당하게 빼앗는 일	이미 거둔 세금을 또 요구하여 양식까지 앗아 감
정치 현실 비판	간신·부패·그릇된 정치 등 현실의 잘못을 비판함	사사로운 이익을 좇는 관리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움

글자 풀이 애민(愛民) = 애(사랑함) + 민(백성). 수탈(收奪): 강제로 빼앗음. '고발'은 그 잘못을 드러내 알리는 것입니다.

백성의 삶을 돌보려는 선비가 "굶는 이의 그릇까지 관리가 빼앗으니, 그들의 겨울을 어찌 견디게 하랴."라고 한다면, **부당한 수탈을 드러냄**과 **고통받는 이를 걱정함**이 함께 있습니다.

이웃을 걱정하고 도우려는 마음을 언제나 애민 정신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자료 C의 농민이 이웃과 밥을 나누려는 마음은 '이웃을 헤아리는 마음과 나눔의 뜻'으로 읽습니다.

흔한 착각 백성이 가난하면 모두 수탈 때문이다

바로잡기 가뭄·전쟁 등 다른 원인도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부당하게 빼앗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질문 피해의 원인과 그 피해를 바라보는 화자의 마음을 나누어 말할 수 있나요?

D10 같은 고통, 다른 원인

공통 상황: 백성의 고통

원인	표현에서 확인할 조건	읽을 수 있는 주제
관리의 부당한 빼앗음	부당하게 빼앗는 행위를 드러냄	수탈 고발
간신·그릇된 정치	정치의 잘못을 비판함	정치 현실 비판
전쟁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슬픔	전란의 비애
가뭄·홍수	재해 속 생활의 고단함·슬픔	삶의 애환 재해만으로 수탈 아님

다스리는 이가 재해 속 백성을 걱정하면?

백성을 돌보는 입장 + 안타까움·보살핌 → 애민 정신

예: Q22 ㉠, 가뭄으로 굶는 백성을 걱정하는 고을 수령

고통만 보지 말고, 원인과 화자의 말을 함께 확인합니다.



I05 양식을 빼앗기는 상황을 떠올리는 삽화입니다. 부당한 반복 징수인지와 화자의 마음은 본문의 말에서 확인합니다.

연결 문항 Q21 · Q22 · Q23 · Q55 · Q57

E12 강호한정·유유자적·풍류는 같은 말인가요?

한 줄 답 자연의 한가로운 정취, 여유로운 삶의 태도, 자연·예술을 즐기는 멋에 각각 초점이 있습니다.

판단 식

강호한정 = 자연 + 한가로운 정취

유유자적 = 얽매임 없음 + 여유로운 삶의 모습

풍류 = 자연·예술 + 멋과 여유를 즐김

개념	뜻	살필 근거
강호한정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가로운 정취	강·산과 함께하는 한가로운 마음
유유자적	얽매임 없이 여유롭고 자유롭게 지냄	서두르거나 다투지 않는 삶의 모습
풍류	자연·예술을 가까이하며 멋과 여유를 즐김	경치를 즐기며 노래·악기·시 등을 가까이함

글자 풀이 강호한정(江湖閑情) = 강호(강과 호수, 곧 자연) + 한정(한가로운 정취). 유유자적(悠悠自適) = 유유(느긋하고 여유로움) + 자적(스스로 편안하게 즐김). 풍류(風流)는 자연·예술을 즐기는 멋으로 이해합니다.

예: “강가에 쉬며 물소리를 듣고, 마음 내키는 대로 거문고를 탄다.” 자연의 정취와 여유로운 삶, 예술을 즐기는 풍류가 함께 읽힐 수 있습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한 장면에 붙이는 여러 해시태그**

“강가에서 한가롭게, 누구와 다투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거문고를 탄다”에는 #자연의한가로움, #얽매임없는삶, #예술을즐김을 함께 붙일 수 있습니다. 각각 강호한정·유유자적·풍류에 초점을 둔 설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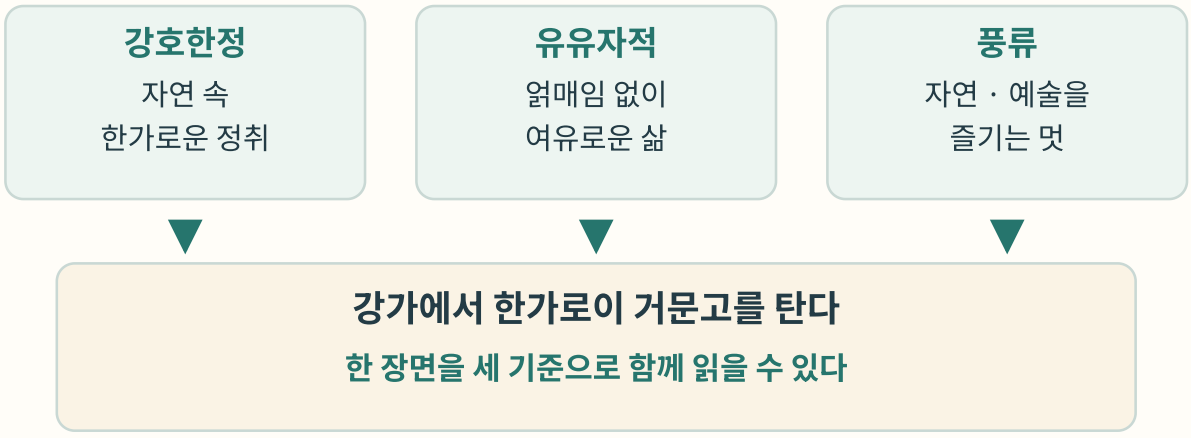
비유의 한계 이 비유는 같은 장면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까지만 맞습니다. 태그를 마음대로 붙일 수는 없고, 각 판단에 맞는 말이 지문에 있어야 합니다.

흔한 착각 세 용어 가운데 반드시 하나만 골라야 한다

바로잡기 묻는 기준에 따라 구별하지만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기잡이로 끼니를 마련한다’는 말만으로 풍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 질문 자연이라는 장소 외에, 한가로움이나 즐김이 드러난 말이 있나요?

D11 자연 속 여유를 읽는 세 초점



연결 문항 Q24 · Q25 · Q35

E13 가난하면 안빈낙도, 만족하면 안분지족인가요?

한 줄 답 가난 자체와 그 가난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구별하고, 도리를 지키는 즐거움이 있는지 살핍니다.

판단 식

안빈낙도 = 가난 + 도리를 지키는 즐거움

안분지족 = 분수를 지키며 지나치게 바라지 않음 + 만족

안분지족에서 가난은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개념	뜻	필요한 근거
안빈낙도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도리를 지키며 즐겁게 삶	가난 + 도리를 지키는 즐거움
안분지족	자신의 분수를 지키며 주어진 삶에 만족함	지나친 욕심을 내지 않고 현재의 삶에 만족함

글자 풀이 안빈낙도(安貧樂道) = 안빈(가난을 편히 여김) + 낙도(도리를 즐김). 안분지족(安分知足) = 안분(분수를 편히 여김) + 지족(만족할 줄 앎).

예	판단
“끼니가 모자라니 몹시 괴롭다.”	가난의 고통. 안빈낙도의 즐거움은 없음
“거친 밥을 먹어도 바른 길을 배우는 즐거움이 크다.”	안빈낙도
“더 높은 벼슬을 탐내지 않고 지금의 삶에 만족한다.”	안분지족. 가난은 제시되지 않음
“누추한 집에서도 도리를 배우며 이만하면 넉넉하다 한다.”	두 태도가 함께 읽힐 수 있음

비유로 이해하기 **용돈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용돈이 적어 새 책은 못 사도, 바른 삶을 배우는 공부가 즐겁다”와 “용돈이 많지 않아도 더 바라지 않고 지금에 만족한다”를 비교해 봅시다. 앞말은 어려운 형편 속 배움의 즐거움, 뒷말은 지나치게 바라지 않는 만족에 초점이 있습니다.

비유의 한계 이 비유는 두 태도의 짜임을 비교하는 데까지만 맞습니다. 용돈이 적다는 것이 곧 가난은 아니며, 안빈낙도의 ‘도’는 아무 취미가 아니라 바르게 사는 도리·학문입니다.

흔한 착각 안분지족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체념이다

바로잡기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이며, 절망 때문에 포기하는 마음과는 구별합니다.

확인 질문 가난, 도리, 즐거움, 만족 가운데 어떤 근거가 실제로 있나요?

D12 안빈낙도와 안분지족

안빈낙도	안분지족
가난 ＋ 도리를 지키는 즐거움	분수를 지킴 ＋ 만족
가난만으로 부족	가난이 필수 조건은 아님

두 태도는 함께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처지와 그 처지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함께 읽습니다.

연결 문항 Q26 · Q27 · Q44 · Q57

E14 물아일체는 자연을 좋아한다는 뜻인가요?

한 줄 답 자연에 대한 호감을 넘어, 자신과 자연이 하나가 된 듯한 경지를 나타냅니다.

판단 식

물아일체 = 나와 자연의 경계가 사라진 듯한 경지

물아일체 ≠ 자연에 대한 호감만 있음 / 물아일체 ≠ 감정을 대상에 부여하는 감정 이입

표현	중심 관계	판단
“저 산이 아름다워 좋다.”	나 → 산을 좋아함	자연에 대한 호감

표현	중심 관계	판단
“나도 슬프고 버들도 나처럼 서럽다.”	나의 슬픔을 버들도 느낌	감정 이입
“물결 속에 마음을 놓으니 나와 강의 경계마저 잊는다.”	나와 자연의 구별이 사라진 듯함	물아일체

글자 풀이 물아일체(物我一體) = 물(바깥 사물·자연) + 아(나) + 일체(한 몸).

실제로 사람의 몸이 물이나 산으로 변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연과 어우러지는 느낌이나 경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장자의 나비 꿈과 경계**

장자의 나비 꿈 이야기는 자신이 나비 꿈을 꾼 것인지, 나비가 자신의 꿈을 꾸는 것인지 묻습니다. 나와 대상의 경계가 흐려진다는 점을 물아일체의 느낌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유의 한계 이 비교는 나와 대상의 경계가 흐려지는 느낌까지만 맞습니다. 호접지몽과 물아일체를 같은 뜻으로 외우거나, 꿈이 나오면 곧 물아일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흔한 착각 감정 이입과 물아일체는 둘 다 자연이 나오므로 같다

바로잡기 감정 이입은 **감정을 함께 느끼도록 표현했는가**, 물아일체는 **자연과 하나가 된 듯한가**를 봅니다.

확인 질문 좋아함, 감정의 공유, 하나 됨 중 무엇을 말하나요?

D13 호감 · 감정 이입 · 물아일체



연결 문항 Q28 · Q29

E15 연하고질·천석고황은 정말 병에 걸렸다는 말인가요?

한 줄 답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칠 수 없는 병처럼 깊다는 뜻으로 씁니다.

판단 식

연하고질·천석고황 = 깊은 자연 사랑 + 고칠 수 없는 병에 빗댐

용어	자연을 가리키는 말	전체 뜻
연하고질	연하: 안개와 노을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 버릴 수 없음
천석고황	천석: 샘과 돌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질병처럼 깊음

글자 풀이 연하고질(煙霞痼疾) = 연하(안개와 노을, 곧 자연) + 고질(오래되어 고치기 어려운 병). 천석고황(泉石膏肓) = 천석(샘과 돌, 곧 자연) + 고황(예전에 병이 깊이 들면 고치기 어렵다고 여긴 몸속 깊은 곳).

병에 빗댄 표현이지만 보통 자연을 향한 깊은 사랑을 나타냅니다. '자연이 싫어서 생긴 병'이나 실제 진단명으로 읽지 않습니다.

예: "산천을 그리는 이 마음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구나." → 자연을 가까이하고 싶은 마음의 깊이를 강조합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너무 좋아해서 생긴 축구병**

축구를 무척 좋아하는 친구가 "나 축구병 걸렸어"라고 말한다면 실제 진단보다 축구를 좋아하는 마음의 깊이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하고질·천석고황도 깊은 사랑을 고치기 어려운 병에 빗댑니다.

비유의 한계 이 비유는 좋아하는 마음을 병에 빗대는 방식까지만 맞습니다. 연하고질·천석고황은 고전 시가에서 자연 사랑을 가리키므로 아무 취미에나 바꾸어 쓰지 않습니다.

흔한 착각 자연을 사랑하면 반드시 세상과 완전히 단절했다

바로잡기 자연애와 정치 현실에 대한 관심이 함께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단절 여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확인 질문 '병'에 빗댄 것은 몸의 상태인가요, 자연을 향한 마음인가요?

연결 문항 Q30 · Q31

E16 산속에 살면 속세에 미련이 없는 건가요?

한 줄 답 사는 장소와 마음이 향하는 곳은 다를 수 있습니다.

판단 식

속세 단절 지향 = 세속의 명예·이익 + 버리려 함

속세 미련·관심 = 몸은 자연 + 마음은 세상 소식

읽을 내용	근거의 예	판단
속세와의 단절 지향	"벼슬과 이익을 놓고 다시 찾지 않으리."	세속의 명예·이익에서 벗어나려 함
속세에 대한 미련·관심	"산에 있어도 조정 소식을 기다린다."	현실 정치에 마음이 남아 있음

읽을 내용	근거의 예	판단
두 마음의 공존	“물소리 좋건마는 나라 걱정이 잠을 깨운다.”	자연의 즐거움과 현실의 걱정이 함께 있음

글자 풀이 속세(俗世): 사람들이 명예와 이익을 좇으며 살아가는 세상. 단절(斷絶): 관계를 끊음. 미련(未練): 마음을 떼지 못함.

현실에 마음이 남아 있다고 해서 모두 명예욕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걱정하거나 임금을 그리워하여 조정 소식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몸은 교실, 마음은 운동장**

교실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점심시간 축구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골에 사는 화자도 마음은 조정 소식을 향할 수 있습니다.

비유의 한계 이 비유는 몸의 자리와 마음의 방향이 다를 수 있다는 점까지만 맞습니다. 작품 속 관심은 잠깐의 딴생각이 아니라 나라·임금처럼 놓지 못하는 가치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흔한 착각 산속이라는 공간이 화자의 가치관까지 증명한다

바로잡기 ‘무엇을 버리려 하는가, 무엇을 계속 생각하는가’를 읽어야 합니다.

확인 질문 몸이 머무는 곳과 마음이 향하는 곳을 각각 짚을 수 있나요?

D14 몸이 머무는 곳과 마음이 향하는 곳

구분	몸의 자리	마음의 방향
단절 지향	산골	자연의 삶 벼슬·이익을 버리려 함
미련·관심	산골	조정 소식 세상에 계속 마음을 둠
공존	산골	자연의 즐거움 + 나라 걱정

산골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속세 단절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연결 문항 Q31 · Q32 · Q33 · Q45 · Q50 · Q53

E17 전원은 언제나 쉬고 즐기는 공간인가요?

한 줄 답 농사·고기잡이로 생계를 잇는 삶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판단 식

현실적 전원생활 = 자연 + 노동·생계

자연을 대하는 모습	중심 내용	판단할 때 주의
그늘에서 한가롭게 쉬며 경치를 즐김	여유·정취	자연 속 여유를 읽을 근거가 있음
마른 논에 물을 대며 식량을 걱정함	노동·생계	전원이라는 이유로 유유자적이라 하지 않음
일하다 쉬며 산빛을 즐기고 다시 밭을 맴	노동과 자연의 즐거움	둘 중 하나를 지우지 않음

글자 풀이 전원(田園): 논과 밭이 있는 시골. 생계(生計): 먹고살아 가는 일.

현실적 전원생활은 자연을 실제 삶의 터전으로 그린 경우입니다. 힘겨운 노동만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경치를 즐긴다고 생계의 문제까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같은 바다, 다른 하루**

휴가 온 사람에게 바다는 쉬는 곳이고, 고기를 잡아 식구를 먹여 살리는 어부에게는 일터입니다. 같은 자연에서도 행동의 목적이 다릅니다.

비유의 한계 이 비유는 삶의 목적에 따라 자연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까지만 맞습니다. 어부도 일하다 노을을 즐길 수 있으므로 노동과 감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를 지우지 않습니다.

흔한 착각 어부가 나오면 풍류를 즐기는 선비이다

바로잡기 고기잡이의 목적과 어획량(잡은 물고기의 양)을 대하는 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 질문 이 행동은 생계를 잇기 위한 것인가요, 경치를 즐기기 위한 것인가요, 둘 다인가요?



I01 왼쪽은 강가에서 쉬는 모습, 오른쪽은 논에서 일하는 모습입니다. 자연 속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삶의 목적과 마음을 같게 정하지 않습니다.

연결 문항 Q16 · Q25 · Q34 · Q35 · Q45 · Q54 · Q55 · Q57

E18 백발은 탄로, 아름다운 대상은 예찬인가요?

한 줄 답 늙음을 한탄하는 말과 대상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말을 각각 확인합니다.

판단 식

탄로 = 늙음 + 한탄

찬양·예찬 = 대상의 성질·가치 + 높이 기림

개념	뜻	확인할 근거
탄로	늙어 감을 한탄함	쇠한 몸·흐른 세월을 슬퍼하거나 아쉬워함
찬양·예찬	대상의 훌륭함·아름다움을 높이 기림	대상의 가치를 인정하고 칭송함

글자 풀이 탄로(歎老) = 탄(탄식함) + 로(늙음). 예찬(禮讚): 훌륭하거나 아름다운 점을 높이 기림.

표현	판단
“백발을 보니 돌아오지 않을 젊음이 서럽다.”	탄로
“흰 머리에도 새 일을 배우니 기쁘다.”	백발은 있으나 늙음을 한탄하지 않음
“눈서리에도 푸른 솔의 굳셈이 훌륭하구나.”	소나무의 변치 않는 성질을 예찬

자연물의 성질을 예찬하면서 사람이 지켜야 할 가치와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칭송하는 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충의까지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흔한 착각 백발·주름·노인이 있으면 탄로이다

바로잡기 늙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확인합니다.

확인 질문 대상의 모습만 제시되었나요, 그 모습에 대한 평가까지 제시되었나요?

연결 문항 Q36 · Q37 · Q47 · Q48 · Q49

E19 전란의 비애와 삶의 애환은 어디서 구별하나요?

한 줄 답 전쟁이 낳은 슬픔인지, 일상의 삶에서 겪는 기쁨과 슬픔인지 원인과 범위를 봅니다.

판단 식

전란의 비애 = 전쟁이 낳은 피해 + 슬픔

삶의 애환 = 살아가는 일 + 그 속의 슬픔과 기쁨

개념	뜻	근거의 예
전란의 비애	전쟁으로 삶이 무너진 데서 오는 슬픔	피란·전쟁의 폐허·전쟁으로 흩어진 가족
삶의 애환	살아가며 겪는 슬픔과 기쁨	가난과 노동의 괴로움, 작은 수확의 기쁨

글자 풀이 전란(戰亂): 전쟁으로 인한 난리. 비애(悲哀): 슬픔. 애환(哀歡) = 애(슬픔) + 환(기쁨).

'삶의 애환'은 넓은 말입니다. 개별 작품에서 슬픔이 중심일 수도 있으므로, 한 대목에 슬픔과 기쁨이 같은 비중으로 나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고통, 다른 원인 — E11 다시 보기

원인 비교: "전쟁 뒤 집터만 남았다."에는 전란의 비애를 읽을 수 있습니다. "홍수 뒤 집터만 남았다."도 슬픈 상황이지만, 전쟁의 근거가 없습니다.

흔한 착각 폐허가 나오면 전쟁이다

바로잡기 피해의 원인을 글이나 〈보기〉에서 확인합니다.

확인 질문 무엇 때문에 이런 처지가 되었으며, 화자는 그것을 어떻게 느끼나요?

연결 문항 Q22 · Q38 · Q39 · Q56 · Q57

E20 연정·이별의 정한·원망은 모두 함께 나타나나요?

한 줄 답 사랑과 이별의 슬픔은 함께할 수 있지만, 원망은 따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판단 식

연정 = 사랑하는 임 + 사랑

이별의 정한 = 이별 + 슬픔·그리움·한

원망 = 상대 + 탓하는 말

개념	뜻	읽을 근거
연정	임을 사랑하는 마음	만나고 싶음·사랑의 지속을 바람
이별의 정한	이별에서 생긴 슬픔·그리움·한 등	떨어진 임을 그리워하며 괴로워함
원망	상대를 탓하며 서운해함	왜 버렸느냐고 탓하거나 무정함을 책망함

글자 풀이 연정(戀情): 사랑하는 마음. 정한(情恨): 정과 한, 곧 그리움과 맺힌 슬픔. 원망(怨望): 상대를 탓하며 서운해함.

표현	판단
“멀리 있어도 그대의 평안을 빈다.”	사랑과 그리움이 드러날 수 있으나 상대를 탓하지는 않음
“어이 나를 버리고 소식도 끊었는가.”	이별의 슬픔과 상대를 향한 원망이 함께 드러남
“다시 만날 날을 바라며 오늘도 기다린다.”	재회 소망. 실제 재회가 이루어졌다는 뜻은 아님

비유로 이해하기 **답장 없는 친구에게 보내는 두 메시지**

“잘 지내? 보고 싶다”와 “왜 답 안 해? 너무해”를 비교해 봅시다. 친구가 곁에 없다는 상황은 같지만, 상대를 탓하는 말은 둘째에만 있습니다.

비유의 한계 이 비유는 그리움과 원망의 근거 낱말을 구별하는 데까지만 맞습니다. 고전 시가의 오랜 이별과 한을 메시지 한 통의 감정과 같은 깊이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흔한 착각 임이 없으면 반드시 버림받은 것이다

바로잡기 부재만으로 이별의 원인이나 상대의 마음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 질문 보고 싶다는 말과 상대를 탓하는 말을 구별했나요?

D15 그리움과 원망을 나누어 읽기

그리움 · 재회 소망
“그대가 보고 싶다.”
“다시 만나고 싶다.”
상대의 부재와 만남의 바람

원망
“왜 나를 버렸는가.”
“소식 끊은 그대가 야속하다.”
상대를 탓하는 마음

함께할 수 있지만, 그리움만으로 원망을 단정하지 않기



I04 부재한 대상을 기다리는 장면입니다. 기다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에 대한 원망이나 재회의 실현까지 정하지 않습니다.

연결 문항 Q40 · Q41 · Q59 · Q60 · Q61

E21 한 작품에 주제가 두 가지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한 줄 답 각 해석에 대응하는 근거를 따로 찾고, 함께 성립하는 마음을 모두 살립니다.

예

산골의 물소리 들으니 마음이 놓인다.
그러나 굶는 백성 생각에 밤마다 잠을 설친다.

해석	근거	판단
자연에서 위안을 얻는다	물소리, 마음이 놓인다	○
백성의 고통을 걱정한다	굶는 백성, 잠을 설친다	○
세상일에 관심을 완전히 끊었다	뒷행과 맞지 않음	✕
이미 백성의 굶주림을 해결했다	해결된 결과가 없음	✕

단일 정답 문항의 읽기: 여러 개념이 함께 성립하더라도, 발문이 무엇을 묻는지에 따라 정답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마음을 모두 설명한 것'인지, '적절하지 않은 것'인지 먼저 봅니다.

✕ **흔한 착각** 앞행의 마음이 나오면 뒤의 다른 마음은 거짓이다

✓ **바로잡기** 즐거움과 걱정처럼 서로 다른 마음도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확인 질문 이 해석은 어느 행을 설명하고, 다른 행과 부딪히지는 않나요?

D18 한 작품, 두 마음

산골의 물소리 들으니 마음이 놓인다.
그러나 굶는 백성 생각에 밤마다 잠을 설친다.

자연에서 얻는 위안
근거: 물소리
＋ 마음이 놓인다

백성의 고통을 걱정
근거: 굶는 백성
＋ 잠을 설친다

두 마음은 한 작품에서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가 없는 해석
세상일과 완전히 단절함 / 이미 굶주림을 해결함
본문과 맞지 않거나, 해결된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연결 문항 Q33 · Q43 · Q45 · Q47 · Q50 · Q53 · Q60 · Q61

E22 〈보기〉와 어휘 풀이를 어디까지 활용하나요?

한 줄 답 **주어진 정보로 본문을 다시 읽되, 본문에 없는 사건이나 감정까지 만들어 내지 않습니다.**

자료의 종류	활용 방법	넘어서면 안 되는 해석
어휘 풀이	낱말의 뜻을 문장에 넣어 읽음	그 뜻 하나로 작품 전체 주제를 확정함
작품의 배경을 설명한 〈보기〉	화자의 처지·대상과 지문을 연결함	작가와 화자를 언제나 같은 인물로 단정함
특정 관점을 제시한 〈보기〉	요구한 관점으로 표현의 의미를 살핌	그 관점에 맞추어 본문의 반대 근거를 지움

예: 〈보기〉가 '이 글의 임은 임금을 가리킨다'고 알려 주고, 본문에 '다시 뵙고 싶다'가 있다면 연군지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임금이 화자를 이미 용서했다거나 불러들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확인: ① 어휘 뜻 → ② 문장 관계 → ③ 상황과 마음 → ④ 해석의 근거. 이 네 과정에서 해석이 본문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비유로 이해하기 **본문을 더 잘 보게 하는 안경**

〈보기〉는 본문을 더 잘 보게 하는 안경과 같습니다. '임은 임금'이라는 정보가 있으면 누구를 그리워하는지 선명해지지만, 본문에 없는 '임금이 불러 주었다'는 사건이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비유의 한계 이 비유는 주어진 정보로 본문을 다시 살펴본다는 점까지만 맞습니다. 특정 면을 강조하는 관점이 주어져도 본문의 반대 근거를 지울 수 없습니다.

연결 문항 Q02 · Q18 · Q23 · Q46 · Q49 · Q51 · Q52 · Q56 · Q59 · Q61

개념 적용 · Q01~Q41

Q01 다음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그대 소식 없건마는 나는 그대를 잊지 않으리.

① 상대가 화자에게 소식을 전하겠다고 약속했다.
② 상대는 화자를 이미 잊었다.
③ 화자는 상대를 만나 그리움을 풀었다.
④ 화자는 상대를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답 ____

해설 A01 →

Q02 민서의 해석을 고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밤이 밝지 않기를 바라노라."를 읽고 민서는 "밤이 이미 밝았다"라고 풀이했다.

① '밤'이라는 소재만 보고 무서운 마음으로 고친다.
② 고전에서는 부정 표현이 뜻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그대로 둔다.
③ '밝다'만 읽고 화자의 기쁜 마음으로 고친다.
④ '않기를 바라노라'를 함께 읽어, 밝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친다.

답 ____

해설 A02 →

Q03 ' 바ᄅᆞ매 '를 '바람에'로 읽을 때 형태를 바르게 나눈 것은?

어휘 정보: 바ᄅᆞᆷ = 바람, 애 = 에.

① 바ᄅᆞᆷ + 애
② 바ᄅᆞ매 + 애
③ 바ᄅᆞ + 매
④ 바 + ᄅᆞ매

답 ____

해설 A03 →

Q04 **옛 표기를 현대어로 읽는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ᄇᆞᄅᆞ매 → 바람에 / ᄀᆞᄅᆞᆷ → 강 / ᄒᆞ마 → 이미·벌써

① 아래아를 없애도 낱말의 뜻은 항상 같다.
② 아래아는 모두 ‘아’로 바꾸면 정확한 뜻이 된다.
③ 아래아가 있으면 해당 낱말은 모두 조사가 된다.
④ 아래아가 들어 있는 낱말을 통째로 확인하며 문맥에 맞는 뜻을 찾는다.

답 ☐

해설 A04 →

Q05 **제시된 어휘 정보를 바르게 적용한 것은?**

믈 = 물 / 됴타 = 좋다 / 조타 = 깨끗하다 / 녀다 = 가다·지나다·살아가다

① 옛말은 첫 자음만 고치면 모두 현대어 뜻을 알 수 있다.
② ‘됴타’와 ‘조타’는 표기만 다르고 뜻은 언제나 같다.
③ ‘믈’은 ‘물’과 관계없는 낱말이라고 보아야 한다.
④ ‘녀다’는 첫소리만 바꾸기보다 문맥에서 ‘가다’ 등의 뜻을 확인한다.

답 ☐

해설 A05 →

Q06 **‘됴타’와 ‘조타’를 구별하는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학습 문장: ㉠ 꽃빛이 됴타. ㉡ 씻은 그릇이 조타.
어휘 정보: 됴타 = 좋다, 조타 = 깨끗하다.

① ㉠은 깨끗함, ㉡은 좋음을 나타낸다.
② ㉠과 ㉡ 모두 ‘좋다’는 뜻이다.
③ ㉠은 좋다는 평가, ㉡은 깨끗한 상태를 나타낸다.
④ ㉡의 ‘조타’는 현대어 ‘좋다’의 오자이므로 글자를 고쳐 읽는다.

답 ☐

해설 A06 →

Q07 다음 문장의 뜻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굶주린 아이가 어엿브다.
어휘 정보: 어엿브다 = 불쌍하다.

① 굶주린 아이의 처지를 불쌍하게 여긴다.
② 아이가 어리석게 행동한다고 꾸짖는다.
③ 아이가 먹을 것을 이미 충분히 얻었다고 말한다.
④ 아이의 외모가 예쁘다고 칭찬한다.

답 [ ]

해설 A07 →

Q08 제시된 어휘 정보를 모두 바르게 적용한 것은?

㉠ 나뭇가지의 여름이 익는다. ㉡ 처마 끝에서 빗방울이 듣는다.
어휘 정보: 여름 = 열매, 듣다 = 떨어지다.

① ㉠에서는 열매가 익고, ㉡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진다.
② ㉠은 여름 계절을, ㉡은 빗방울이 소리를 듣는 행동을 뜻한다.
③ ㉡에 비가 있으므로 두 문장 모두 슬픔을 드러낸다.
④ ㉠은 열매를 뜻하지만 ㉡은 빗방울을 사람처럼 표현한 것이다.

답 [ ]

해설 A08 →

Q09 다음 뜻풀이 가운데 바른 것은?

어휘 정보: 도곤 = 보다 / 손ᄃᆡ = 에게 / 님하의 하 = 높여 부르는 호격 조사

① ‘너 손ᄃᆡ’는 ‘너보다’로 풀이한다.
② ‘너도곤’은 ‘너보다’로 풀이하여 비교 기준을 확인한다.
③ ‘님하’는 ‘임이 매우 많다’로 풀이한다.
④ ‘너도곤’은 ‘너에게’로 풀이하여 말을 받는 상대를 확인한다.

답 [ ]

해설 A09 →

Q10 **두 ‘하’의 기능을 바르게 구별한 것은?**

㉠ 님하, 이 말을 들으소서. ㉡ 하 슬프니 눈물이 난다.
어휘 정보: ‘하’에는 대상을 높여 부르는 호격 조사와 ‘매우’라는 뜻의 부사 용법이 있다.

① ㉠과 ㉡ 모두 이미 끝난 일을 나타낸다.
② ㉠은 임을 부르고, ㉡은 슬픔의 정도를 나타낸다.
③ ㉠과 ㉡ 모두 서로 비교하는 기능을 한다.
④ ㉠은 슬픔의 정도를, ㉡은 임을 부르는 기능을 나타낸다.

답 ☐

해설 A10 →

Q11 **다음에서 반드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임을 다시 만나고져.”
어휘 정보: -고져 = -하고 싶다.

① 임을 다시 만나 소망이 이루어졌다.
② 임이 먼저 재회 날짜를 정해 주었다.
③ 임을 만나고 싶지 않다.
④ 임과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

답 ☐

해설 A11 →

Q12 **어미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ㄹ셰라: -할까 두렵다 / ㉡ -ㄹ셔: 감탄 / ㉢ -ㄹ시: -므로

① ㉢은 앞으로 이루고 싶은 일을 나타낸다.
② ㉠이 쓰이면 걱정하던 일이 이미 일어난 것이다.
③ ㉠과 ㉡은 철자가 비슷하므로 모두 기쁜 감탄만 나타낸다.
④ ㉠은 염려를, ㉡은 감탄을, ㉢은 까닭을 나타낸다.

답 ☐

해설 A12 →

Q13 **계절과 정서를 바르게 읽은 것은?**

도화가 막 피어난 봄날, 그대 없는 빈 뜰이 더욱 쓸쓸하다.
어휘 정보: 도화 = 복사꽃.

① 도화는 눈을 뜻하므로 겨울 풍경이다.
② 봄의 풍경 속에서 상대의 부재로 인한 쓸쓸함을 느낀다.
③ 꽃이 피었으므로 화자는 이별을 모두 잊고 기뻐한다.
④ 쓸쓸하므로 실제 계절은 겨울이다.

답 ☐

해설 A13 →

Q14 **계절 어휘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어휘 정보: 세우 = 가는 비 / 황운 = 누런 구름, 문맥에 따라 누렇게 익은 곡식의 비유 / 금수(錦繡): 수놓은 비단 → 비단처럼 곱게 물든 산천
단풍 든 가을 산을 가리킬 때가 많지만, 꽃이 핀 봄 산천을 가리킬 수도 있으므로 문맥으로 계절을 확인합니다.

① 세우는 어떤 문맥에서도 봄에만 내리는 비이다.
② 황운이 익은 들판을 가리키는지 확인한 뒤 가을과 연결한다.
③ 금수라는 말만 있으면 반드시 가을이라고 확정한다.
④ 황운이 나오면 화자는 반드시 풍년을 기뻐한다.

답 ☐

해설 A14 →

Q15 **다음 구절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침 해가 떠 마당을 밝히자, 나는 문밖에 빨래를 넌다.

① 이 구절만으로 해가 임금을 상징한다고 확정하기는 어렵다.
② 빨래를 너는 행동은 반드시 충성을 맹세하는 행동이다.
③ 화자는 궁궐에서 쫓겨난 신하임이 확실하다.
④ 고전적 소재인 해는 언제나 임금만 뜻한다.

답 ☐

해설 A15 →

Q16 백구가 등장하는 다음 구절을 바르게 읽은 것은?

백구 떠 있는 물가에서 그물을 거둔다. 오늘도 고기가 적으니 아이들 끼니가 걱정이다.
낱말 풀이: 그물을 거두다 = 쳐 두었던 그물을 끌어 올리다.

① 백구가 있으므로 화자는 생계 걱정 없이 한가롭다.
② 아이들은 이미 배불리 먹었으므로 걱정이 사라졌다.
③ 고기가 적은 것은 관리가 빼앗아 갔기 때문이다.
④ 자연 속 고기잡이가 생계와 연결되어 있다.

답 [ ]

해설 A16 →

Q17 ㉠과 ㉡의 중심 마음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나라의 형편이 날로 어지러워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 멀리 계신 임금을 생각하며 다시 뵐 날을 기다린다.

① ㉠ 풍수지탄 / ㉡ 탄로
② ㉠ 우국지정 / ㉡ 연군지정
③ ㉠ 연군지정 / ㉡ 우국지정
④ ㉠ 안분지족 / ㉡ 물아일체

답 [ ]

해설 A17 →

Q18 다음 구절과 〈보기〉를 함께 읽은 해석으로 적절한 것은?

이 몸이 멀리 있어도 임을 향한 뜻을 저버리지 않으리.
〈보기〉 이 글에서 '임'은 임금을 가리킨다.

① 화자는 반드시 임금의 부름을 받고 돌아가는 중이다.
② '임'이 있으므로 〈보기〉와 관계없이 연인만 가리킨다.
③ 임금에 대한 충성과 의리를 지키겠다는 태도가 드러난다.
④ 화자는 임금을 향한 마음을 이미 버렸다.

답 [ ]

해설 A18 →

Q19 풍수지탄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노래가 문득 떠오른다.
② 어머니 돌아가신 뒤, 따뜻한 밥 한 끼 더 못 올린 일이 한스럽다.
③ 멀리 사시는 어머니께 오늘도 안부 편지를 쓴다.
④ 늙은 내 모습이 거울에 비치니 젊은 날이 그립다.

답 ☐

해설 A19 →

Q20 다음 구절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발문 주의 · 적절하지 않은 해석을 고릅니다.

> 살아 계신 아버지께 겨울옷을 지어 보내리라.

① 앞으로 하려는 일을 말한다.
② 아버지를 보살피려는 마음이 있다.
③ 아버지께 겨울옷을 보내려 한다.
④ 부모가 돌아가신 뒤 못다 한 효도를 한탄한다.

답 ☐

해설 A20 →

Q21 다음 구절에서 함께 확인되는 것은?

> 백성의 삶을 돌보려는 선비가 말한다.
> “관리가 이미 거둔 세금을 또 요구하여 마지막 양식까지 빼앗는다. 굶는 백성이 가여워 그들의 겨울을 걱정한다.”

① 탄로와 풍수지탄
② 물아일체와 연군지정
③ 수탈 고발과 애민 정신
④ 안빈낙도와 풍류

답 ☐

해설 A21 →

Q22 다음 두 구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백성의 삶을 살피는 고을 수령의 말이다.
㉠ 가뭄에 곡식이 마르니 굶는 백성이 가엾다.
㉡ 관리가 제 창고를 채우려고 백성의 곡식을 빼앗는다니 참으로 그릇되다.

① ㉠과 ㉡ 모두 관리가 피해를 일으켰다고 명시한다.
② ㉠은 백성을 걱정하고, ㉡은 관리의 부당한 수탈을 비판한다.
③ ㉠은 백성의 굶주림을 기뻐한다.
④ ㉡은 관리의 행동을 훌륭하다고 기린다.

답 ____

해설 A22 →

Q23 〈보기〉를 참고할 때 다음 구절에서 드러나는 것은?

뜬구름이 해를 가리니 온 들이 어둡구나. 밝은 빛을 막는 저 구름이 원망스럽다.
〈보기〉 이 학습용 창작 구절의 '해'는 임금, '뜬구름'은 임금의 판단을 흐리는 간신을 가리킨다.

① 관리가 곡식과 세금을 부당하게 빼앗는 수탈을 고발한다.
② 임금과 떨어져 지내며 임금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한다.
③ 간신이 임금의 판단을 흐려 어두워진 정치 현실을 비판한다.
④ 구름이 햇빛을 가리는 날씨만 묘사하고 정치 현실과는 관계가 없다.

답 ____

해설 A23 →

Q24 다음 구절의 삶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강가의 맑은 바람을 즐기며 천천히 거문고를 탄다. 누구와 앞서려 다투지도 않고 해 기우는 줄도 모른다.

① 악기가 등장하므로 반드시 생계를 위한 공연이다.
② 자연의 정취를 즐기는 여유와 풍류가 드러난다.
③ 노동의 대가를 빼앗긴 데 대한 분노가 중심이다.
④ 병든 부모를 모시지 못한 후회가 중심이다.

답 ____

해설 A24 →

Q25 유유자적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가장 부족한 것은?

발문 주의 · 유유자적의 근거가 가장 부족한 것을 고릅니다.

① 아이들 먹일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 해 지기 전까지 그물을 쉬지 않고 끌어당긴다.
② 얽매인 일에서 잠시 벗어나 느긋하게 구름을 바라본다.
③ 세상과 다툴 마음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강가를 거닌다.
④ 서두를 일 없어 물소리를 들으며 한가롭게 쉬고 있다.

답 ☐

해설 A25 →

Q26 안빈낙도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① 남보다 많은 재물을 얻어야만 마음이 놓인다.
② 돌아가신 어머니께 잘해 드리지 못한 일이 한스럽다.
③ 거친 밥을 먹어도 바른 도리를 배우는 즐거움은 잃지 않는다.
④ 먹을 것이 없어 괴롭고 어떻게 살아갈지 두렵다.

답 ☐

해설 A26 →

Q27 다음 구절에서 가장 분명하게 확인되는 태도는?

> 더 높은 벼슬이나 더 큰 집을 바라지 않는다. 지금의 삶이면 내게 넉넉하다.

① 뜻을 이룰 수 없어 삶을 포기하는 체념
②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안분지족
③ 가난 속에서도 도를 즐기는 안빈낙도
④ 늙어 가는 일을 슬퍼하는 탄로

답 ☐

해설 A27 →

Q28 물아일체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① 슬픈 내 마음처럼 버들잎도 서럽게 운다.
② 강물의 깊이를 재고 건널 곳을 고른다.
③ 강물이 맑아 보기 좋다고 생각한다.
④ 물결에 마음을 맡기니 내가 강인지 강이 나인지 구별을 잊는다.

답 ☐

해설 A28 →

Q29 두 표현의 차이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 내 서러움을 아는 듯 갈대도 나와 함께 슬퍼한다.
㉡ 갈대숲에 잠겨 나와 숲의 구별을 잊는다.

① ㉡은 화자의 몸이 실제 식물로 변한 사건을 기록한다.
② ㉠은 감정을 대상에 부여하고, ㉡은 자연과 하나가 된 듯한 경지를 나타낸다.
③ ㉠은 물아일체만, ㉡은 감정 이입만 보여 준다.
④ ㉠과 ㉡ 모두 자연에 대해 아무 마음도 드러내지 않는다.

답 ☐

해설 A29 →

Q30 ‘연하고질’에 대한 풀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산천을 향한 이 마음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하리.”를 두고 연하고질이라고 설명하였다.

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질병처럼 깊음을 비유한다.
② 병이 완치되어 자연에 관심을 잃었다는 뜻이다.
③ 산천에서 얻은 병의 진단명이 밝혀졌다는 뜻이다.
④ 자연이 싫어 병에 걸렸다는 뜻이다.

답 ☐

해설 A30 →

Q31 다음 구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산천을 사랑하는 천석고황은 깊어 가지만, 나라의 소식에는 여전히 귀를 기울인다.

① 나라 소식을 듣는다는 것은 반드시 높은 벼슬을 탐낸다는 뜻이다.
② 천석고황은 자연과 정치 현실을 모두 싫어한다는 뜻이다.
③ 자연에 대한 깊은 사랑과 정치 현실에 대한 관심이 함께 있다.
④ 자연을 사랑하므로 세상일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다.

답 [ ]

해설 A31 →

Q32 몸이 있는 곳과 마음이 향하는 곳을 바르게 읽은 것은?

> 산골에 집을 지었으나 조정 소식이 늦으면 밤마다 문밖을 살핀다.

① 화자는 이미 궁궐 안에서 일을 보고 있다.
② 산골에 살면서도 정치 현실에 관심을 두고 있다.
③ 산골에 살므로 조정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사라졌다.
④ 문밖을 살피는 이유는 전쟁의 적군이 왔기 때문이다.

답 [ ]

해설 A32 →

Q33 다음 구절의 두 마음을 모두 살린 해석은?

> 계곡의 물소리 들으면 마음이 맑아진다. 그러나 어지러운 나라 형편은 밤마다 잠을 깨운다.

①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어 편안히 잠든다.
② 자연을 즐기므로 나라의 형편을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③ 나라를 걱정하므로 자연에서는 아무 위안도 얻지 못한다.
④ 자연에서 위안을 얻으면서 나라의 형편을 걱정한다.

답 [ ]

해설 A33 →

Q34 다음에서 전원의 성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갈라진 논바닥에 밤새 물을 나른다. 올가을 곡식을 거두어야 식구들이 겨울을 나리라.

① 아무 일도 없이 경치만 즐기는 공간
② 이미 풍년이 들어 생계 문제가 모두 해결된 공간
③ 노동과 생계가 이어지는 삶의 현장
④ 임금을 그리워하기 위해서만 머무는 공간

답 [ ]

해설 A34 →

Q35 다음 구절을 읽은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밭을 매다 잠시 쉬며 먼 산빛을 즐긴다. 해가 기울기 전에 남은 밭을 마저 매야 한다.

① 잠시 쉬므로 생계를 위한 노동은 전혀 없다.
② 산빛이 있으므로 화자는 일생 동안 노동하지 않았다.
③ 전원에서 일하는 모습과 자연을 즐기는 순간이 함께 나타난다.
④ 다시 일해야 하므로 산빛을 즐겼다는 말은 거짓이다.

답 [ ]

해설 A35 →

Q36 탄로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① 멀리 떠난 임의 소식이 없어 그립다.
② 거울 속 백발을 보니 돌아오지 않을 젊음이 서럽다.
③ 흰 눈이 쌓인 산을 보며 고운 빛을 칭찬한다.
④ 백발이 되어도 새 글을 배우니 오늘이 즐겁다.

답 [ ]

해설 A36 →

Q37 다음 구절에서 직접 확인되는 것은?

> 눈서리를 견디며 푸른 빛을 지키는 소나무여, 네 굳셈이 참으로 훌륭하구나.

① 시련을 견디는 듯한 소나무의 굳셈을 예찬한다.
② 소나무의 푸른 빛이 사라진 것을 비판한다.
③ 자연의 모든 대상이 소나무보다 훌륭하다고 한다.
④ 소나무를 예찬했으므로 화자가 임금에 대한 충의를 드러낸다고 확정한다.

답 ☐

해설 A37 →

Q38 전란의 비애를 판단할 근거가 가장 분명한 것은?

① 홍수가 지나간 마을에서 무너진 담을 고친다.
② 전쟁이 휩쓴 마을에 돌아오니 집은 재가 되고 가족은 흩어져 눈물만 난다.
③ 오래 비운 집에 잡초가 자라 있다.
④ 일을 마치고 이웃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는다.

답 ☐

해설 A38 →

Q39 다음 구절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품을 팔아도 쌀독이 비어 한숨 쉬다가, 이웃이 나눠 준 한 그릇 죽에 눈물 섞인 웃음을 짓는다.
> 낱말 풀이: 품을 팔다 = 남의 일을 해 주고 삯을 받다.

① 웃었으므로 화자의 궁핍한 생활은 완전히 끝났다.
② 가난과 괴로움 없이 줄곧 한가롭게 지낸다.
③ 궁핍한 삶의 괴로움과 작은 나눔의 기쁨이 함께 드러난다.
④ 이웃이 양식을 빼앗는 수탈 행위가 중심이다.

답 ☐

해설 A39 →

Q40 **다음에서 분명하게 확인되는 마음은?**

> 먼 곳의 그대여, 나를 잊었을까 묻지는 않으리. 다만 편안히 지내다가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

① 상대의 평안을 빌며 재회를 소망하는 마음
② 재회가 이미 이루어진 데 대한 만족
③ 상대를 더는 만나고 싶지 않은 마음
④ 상대가 자신을 버렸다고 책망하는 원망

답 ☐

해설 A40 →

Q41 **두 구절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이별한 뒤 그대가 그리워 밤마다 창을 연다.
> ㉡ 이별한 뒤 나를 잊고 소식 끊은 그대가 야속하다.

① ㉠에만 원망이 있고 ㉡에는 아무 감정도 없다.
② 둘 다 상대와 함께 지내는 현재를 기뻐한다.
③ ㉡의 원망이 있으므로 ㉠에도 반드시 같은 원망이 있다.
④ 둘 다 이별 뒤의 마음을 말하며, ㉡에는 상대를 탓하는 마음이 더 분명하다.

답 ☐

해설 A41 →

짧게 쓰기 · Q42~Q45

Q42 **‘ 사ᄅᆞ미 ’를 낱말과 조사로 나누고 현대어 뜻을 쓰세요.**

어휘 정보: 사ᄅᆞᆷ = 사람, 이 = 주격 조사.

낱말 + 조사: ___ + ___

현대어 뜻: _____

해설 A42 →

Q43 **두 문장에 나타난 마음을 각각 개념 이름으로 쓰고, 근거를 하나씩 짚으세요.**

㉠ 나라의 어지러운 형편에 밤잠을 설치노라.
㉡ 멀리 계신 임금을 다시 뵙고 싶노라.

구분	개념	근거
㉠		
㉡		

해설 A43 →

Q44 **이 구절을 안빈낙도라고 판단할 수 있는 두 가지 근거를 쓰세요.**

거친 밥에 누추한 집이어도, 바른 도리를 배우고 지키는 즐거움이 크다.

근거 ① _____

근거 ② _____

해설 A44 →

Q45 **두 판단 중 적절한 것을 고르고, 나머지 판단이 맞지 않는 근거를 쓰세요.**

논에 물을 대다 잠시 산빛을 즐긴다. 그러나 내일의 양식은 여전히 걱정이다.
㉠ 노동·생계와 자연의 즐거움이 함께 있다.
㉡ 자연을 즐기므로 생계 걱정이 완전히 사라졌다.

고른 판단 ☐

나머지가 틀린 근거: _____

해설 A45 →

판단 근거 총정리

개념	꼭 필요한 근거	이것만으로는 부족
충의	임금·나라를 향한 충성과 의리	임금이라는 말만 있음
우국지정	나라 형편에 대한 걱정	나라·궁궐이라는 장소만 있음
연군지정	임금이라는 대상 확인 + 그리움	'임'이라는 말만 있음
효	부모의 은혜를 알고 섬기려는 마음·실천	부모가 등장함
풍수지탄	부모 사후 + 못다 한 효도의 후회	부모가 그립다는 말만 있음
애민 정신	백성을 돌보는 입장 + 백성에 대한 안타까움·보살핌	백성이 가엾다는 말만 있고, 백성을 돌보는 입장이 드러나지 않음
수탈 고발	권력자의 부당한 빼앗음이 드러남	백성이 굶음
정치 현실 비판	간신·부패·그릇된 정치 + 비판	조정·관리라는 말만 있음
강호한정	자연 + 한가로운 정취	강·산이라는 장소만 있음
유유자적	얽매임 없는 여유로운 삶·태도	시골에 거주함
풍류	자연·예술을 멋스럽고 여유롭게 즐김	악기라는 물건만 등장함
안빈낙도	가난 + 도리를 지키는 즐거움	가난함
안분지족	분수를 지키고 지나친 욕심 없이 만족함	지금의 형편을 말하기만 함(더 바라지 않음·만족이 드러나지 않음)
물아일체	나와 자연이 하나가 된 듯한 경지	자연을 좋아하거나 감정을 부여함
연하고질·천석고황	깊은 자연 사랑을 고치기 어려운 병에 빗댐	'병·약'이라는 말만 있고, 자연을 향한 마음이 드러나지 않음
속세 단절 지향	세속의 명예·이익에서 벗어나려는 마음	산속에 거주함
속세 미련·관심	자연에 있으면서 세상에 마음을 둠	산골 집이 등장함
현실적 전원생활	자연 속 노동·생계	전원의 경치만 묘사함
탄로	늙음 + 한탄	백발이 등장함
찬양·예찬	대상의 훌륭함·아름다움을 높이 기림	대상의 모습만 제시함
전란의 비애	전쟁이 피해 원인임 + 슬픔	폐허만 있음

개념	꼭 필요한 근거	이것만으로는 부족
삶의 애환	생활에서 겪는 슬픔·기쁨	생활 도구만 나열됨
연정	임을 사랑하는 마음	누군가 멀리 있음
이별의 정한	이별에 따른 슬픔·그리움·한	떨어져 있다는 사실만 있음
원망	상대를 탓하며 서운해함	임이 없다는 사실만 있음

종합 적용 · Q46~Q61

자료 A — 윤선도, 「오우가」 중 「수(水)」·「송(松)」

「오우가」는 물·돌·소나무·대나무·달을 다섯 벗으로 삼아 기린 연시조입니다. 연시조는 평시조 여러 수를 엮은 작품이며, '수'는 시조 한 편을 세는 단위입니다. 여기서는 물과 소나무를 노래한 두 수를 읽습니다.

아래아 등 옛한글은 현대 유니코드 자모로 옮겼으며, 띄어쓰기·문장 부호는 읽기 편하게 정리했습니다. 각 수의 세 장을 초장·중장·종장으로 표시했습니다.

(가) 수(水)

초장 구룸빗치 조타 ᄒᆞ나 검기를 ᄌᆞ로 ᄒᆞᆫ다
중장 ᄇᆞ람 소릐 ᄆᆞᆰ다 ᄒᆞ나 그칠 적이 하노매라
종장 조코도 그츨 뉘 업기ᄂᆞᆫ 믈뿐인가 ᄒᆞ노라

(나) 송(松)

초장 더우면 곳 퓌고 치우면 닙 디거ᄂᆞᆯ
중장 솔사 너ᄂᆞᆫ 얻디 ᄂᆞᆫ서리를 모ᄅᆞᄂᆞᆫ다
종장 九泉(구쳔)의 블희 고ᄃᆞᆫ 줄을 글토 ᄒᆞ야 아노라

표현	이 구절에서의 뜻
구룸빗치 / 조타 / ᄌᆞ로	구름빛이 / 깨끗하다 / 자주
ᄒᆞ나	하나: ᄒᆞ다(오늘날 '하다') + -나 → "깨끗하다고 하나"
하노매라	많구나: 하다(많다) + -노매라(감탄)
ᄆᆞᆰ다	맑다
검기를 ᄌᆞ로 ᄒᆞᆫ다	검어지기를 자주 한다
더우면 / 치우면	더우면 / 추우면
조코도 그츨 뉘 업기ᄂᆞᆫ	깨끗하고도 그칠 때가 없는 것은
믈	물
곳 퓌고 / 닙 디거ᄂᆞᆯ	꽃 피고 / 잎 지거늘
솔사 / 얻디 / 모ᄅᆞᄂᆞᆫ다	소나무야(소나무를 부르는 말) / 어찌 / 모르느냐

표현	이 구절에서의 뜻
구쳔 / 블희 / 고ᄃᆞᆫ / 글토 ᄒᆞ야	땅속 깊은 곳 / 뿌리 / 곧은 / 그것으로 말미암아

표기 확인: ‘퓌고·솔사·글토 ᄒᆞ야’는 아래 원문 제공 페이지에 적힌 표기를 따랐습니다. 여기서 ‘솔사’는 소나무를 부르는 말, ‘글토 ᄒᆞ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으로 읽습니다.

학습용 풀이

(가) 구름빛은 깨끗하다고 하지만 자주 검어진다. 바람 소리는 맑다고 하지만 멎는 때가 많다. 깨끗하면서 끊임없이 흐르는 것은 물이라고 여긴다.

(나) 더울 때 꽃이 피고 추워지면 잎이 지는데, 소나무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는 듯 견디는가. 그 모습을 통해 땅속 깊은 뿌리가 곧음을 알겠다고 말한다.

출전: 『고산유고』 권6하, 별집, 「산중신곡」의 「오우가」. 원문 대조: 국사편찬위원회 ‘사료로 본 한국사’. 위 학습용 풀이와 아래 문항·해설은 이 자료를 위해 새로 작성했습니다.



I06 눈서리에도 변치 않는 소나무와 곧은 뿌리라는 시적 표현을 떠올리는 삽화입니다. 실제 나무의 뿌리 모양을 그대로 보여 주는 관찰도는 아닙니다.

Q46 **자료 A (가)의 어휘 풀이를 적용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조타’와 ‘조코도’는 깨끗함과 관련되며, ‘믈’은 물이다.
② ‘ᄌᆞ로’는 자르다라는 뜻이므로 물을 베어 낸다고 한다.
③ ‘그츨 뉘 업기ᄂᆞᆫ’은 그칠 때가 많다는 뜻이다.
④ ‘하노매라’는 이미·벌써라는 뜻이므로 바람이 벌써 멎었다고 한다.

답 [ ]

해설 A46 →

Q47 **자료 A (가)에서 물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물이 바람보다 훨씬 큰 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② 물도 구름처럼 자주 검어지기 때문이다.
③ 구름·바람과 비교하여 깨끗함과 그치지 않음을 함께 갖추었기 때문이다.
④ 물도 (나)의 소나무처럼 눈서리를 견디기 때문이다.

답 ☐

해설 A47 →

Q48 **자료 A (나)의 중장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질문하는 형식으로 눈서리에도 견디는 소나무의 성질을 두드러지게 한다.
② 화자가 정말로 답을 몰라서 소나무에게 묻는다.
③ '모ᄅᆞ눈다'는 현대 평서형과 같으므로 질문 형식이 아니다.
④ 소나무가 추위에 잎을 모두 잃었다고 단정한다.

답 ☐

해설 A48 →

Q49 **자료 A의 두 수를 읽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발문 주의 · 적절하지 않은 해석을 고릅니다.

① 눈서리 속 소나무의 모습은 변치 않는 성질을 읽는 근거가 된다.
② 서로 다른 자연물의 모습이나 성질을 비교하여 중심 대상을 돋보이게 한다.
③ 두 수 모두 화자가 임금의 부름을 받아 궁궐로 돌아간 사건을 직접 말한다.
④ 자연물의 성질을 높이 평가하는 마음이 드러난다.

답 ☐

해설 A49 →

자료 B — 먼 섬의 저녁

학습용 창작 시. 〈보기〉도 이 지문을 위한 가상 설정입니다.

1. 저녁 물빛이 맑아 잠시 시름을 놓는다.
2. 멀리 계신 임의 소식은 오늘도 닿지 않았다.
3. 다시 뵐 날을 바라며 북녘 하늘을 본다.
4. 어지러운 나라 형편에 잠은 쉬이 오지 않는다.
5. 몸은 이 섬에 있어도 지켜 온 뜻을 버리지 않으리.

〈보기〉 이 글의 화자는 가상으로 설정한 유배된 신하이며, '임'은 임금이다. 화자는 나라와 임금에 대한 충성의 뜻을 지키려 한다. 북녘은 이 글의 설정에서 임금이 있는 곳의 방향이다.

낱말 풀이: 유배 = 죄인에게 먼 곳에서 살도록 하던 벌. 이 자료에서는 그 벌을 받은 신하를 가상으로 설정했습니다.

Q50 자료 B의 1행과 4행을 함께 읽은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자연에서 잠시 시름을 덜면서도 나라의 형편을 걱정한다.
② 나라를 걱정하므로 물빛이 맑다는 표현은 반드시 거짓말이다.
③ 1행에서 시름을 놓았으므로 4행의 걱정도 완전히 끝났다.
④ 나라의 형편이 좋아져 편히 잠든다.

답 ☐

해설 A50 →

Q51 자료 B에서 '북녘 하늘'을 연군지정과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근거는?

① 북녘 하늘이 화자에게 돌아오라고 직접 말하기 때문이다.
② 북쪽은 어떤 작품에서든 반드시 임금만 뜻하기 때문이다.
③ 북쪽을 보는 행동만 있으면 화자가 임금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④ 다시 뵙기를 바라는 대상이 임금이며, 〈보기〉에서 북녘을 임금이 있는 방향으로 제시한다.

답 ☐

해설 A51 →

Q52 자료 B의 5행을 읽은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임금과 나라를 향한 충성의 뜻을 지키려는 의지가 드러난다.
② 임금이 화자의 뜻을 알아주었다고 확정한다.
③ 섬을 떠나 궁궐에 도착한 사실을 알린다.
④ 화자가 지켜 온 뜻을 이미 버렸다고 말한다.

답 [ ]

해설 A52 →

Q53 자료 B를 종합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발문 주의 · 적절하지 않은 해석을 고릅니다.

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과 충성을 지키려는 뜻이 함께 드러난다.
② 사는 공간과 마음이 향하는 곳 사이에 거리가 있다.
③ 화자는 자연에 머무르며 현실 정치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
④ 임금의 소식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뵙기를 바란다.

답 [ ]

해설 A53 →

자료 C — 빈 광과 익은 들판

학습용 창작 시. 광은 곡식 등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1. 여름내 물을 길어 살린 벼가 누렇게 익었다.
2. 굽은 허리를 펴며 올해는 한숨을 덜까 웃었다.
3. 이미 거둔 세금을 또 내라며 관리가 문을 두드린다.
4. 겨울 몫까지 실어 가니 광에는 짚 냄새만 남았다.
5. 이웃집 아이의 빈 그릇이 눈에 밟힌다.
6. 우리 밥 한 술 덜어 그 그릇을 채우고 싶다.

Q54 **자료 C 1·2행에서 읽을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여름 동안의 노동과 익은 곡식을 보고 느끼는 기대가 연결되어 있다.
② 화자는 노동하지 않고 경치만 즐기고 있다.
③ 곡식이 익었으므로 이후의 생계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다.
④ ‘여름내’는 열매를 뜻하므로 계절이나 노동 기간과 관계가 없다.

답 ☐

해설 A54 →

Q55 **자료 C 3·4행의 핵심 문제를 설명한 것은?**

① 관리의 거듭된 징수로 생계에 필요한 양식까지 빼앗긴다.
② 가뭄 때문에 벼가 전혀 익지 못한다.
③ 자발적인 선물로 양식을 모두 나누어 주고 만족한다.
④ 전쟁의 적군이 마을을 불태운다.

답 ☐

해설 A55 →

Q56 **자료 C 5·6행에서 확인되는 태도로 적절한 것은?**

① ‘채우고 싶다’고 했으므로 화자는 이미 이웃에게 밥을 나누어 주었다.
② 자신도 어렵기 때문에 이웃의 처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③ 화자는 이웃을 도우려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양식이 넉넉하다고 확신한다.
④ 이웃의 굶주림을 안타까워하며 자신의 밥을 나누려 한다.

답 [ ]

해설 A56 →

Q57 **자료 C의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발문 주의 · 적절하지 않은 해석을 고릅니다.

① 농사짓는 노동과 수확을 기대하는 마음이 드러난다.
② 지배층의 부당한 행위 때문에 백성의 생활이 어려워진다.
③ 가난하게 되었으므로 화자가 도리를 즐기는 안빈낙도에 이르렀다고 확정한다.
④ 고단한 삶 속에서도 다른 이의 어려움을 헤아린다.

답 [ ]

해설 A57 →

자료 D — 남은 옷과 남겨 둔 자리

학습용 창작 시 두 편. (가)와 (나)의 말하는 이는 서로 다릅니다.

(가)

1. 어머니 돌아가신 뒤에야 낡은 옷을 펼친다.
2. 겨울마다 새 옷 한 벌 미루던 내가 부끄럽다.
3. 이제 지어 올린들 입으실 날이 없구나.

(나)

1. 떠난 그대의 자리를 오늘도 비워 둔다.
2. 돌아올 날은 몰라도 편안히 지내기만을 빈다.
3.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따뜻한 밥을 함께 먹고 싶다.

Q58 자료 D (가)의 중심 마음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① 어머니가 새 옷을 싫어했다고 원망한다.
② 살아 계신 어머니와 새 옷을 입고 즐거워한다.
③ 자신의 백발을 보고 늙음을 한탄한다.
④ 돌아가신 어머니께 제때 효도하지 못한 일을 한탄한다.

답 ☐

해설 A58 →

Q59 자료 D (나)에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① 상대가 돌아와 이미 함께 밥을 먹었다.
② 상대가 화자를 일부러 버렸으며 화자는 이를 책망한다.
③ 떠난 상대의 평안을 바라며 다시 만나기를 소망한다.
④ 상대가 죽어 다시 만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

답 ☐

해설 A59 →

Q60 **자료 D의 두 시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① 두 시 모두 상대가 돌아오기로 한 약속을 확정적으로 제시한다.
② 두 시 모두 궁궐을 그리워하는 신하를 화자로 설정했다.
③ 모두 부재한 대상을 향하지만, (가)는 못다 한 효도의 후회, (나)는 상대의 안녕과 재회 소망이 중심이다.
④ (가)는 상대를 탓하고, (나)는 자신이 효도하지 못한 일을 뉘우친다.

답 ☐

해설 A60 →

Q61 **자료 D를 읽은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발문 주의 · 적절하지 않은 해석을 고릅니다.

① (나)의 '먹고 싶다'는 앞으로 이루고 싶은 일로 읽는다.
② 두 시에 옷이나 밥이 있으므로, 대상과 화자의 관계도 같다고 보아야 한다.
③ (가)의 '입으실 날이 없구나'는 어머니 사후의 돌이킬 수 없음을 드러낸다.
④ 대상이 누구인지와 어떤 상황인지 먼저 확인해야 두 시의 마음을 구별할 수 있다.

답 ☐

해설 A61 →

부록 · 고전 어휘 사전

옛 표기	뜻	문맥에서 확인할 점
ᄀᆞᄅᆞᆷ	강	아래아를 임의로 ‘아’로 바꾸어 원형을 없애지 않는다
가없다	끝이 없다	—
ᄀᆞᆺ	끝	긋과 연결
건듯	문득·갑자기	—
계우다	감정·상태 등을 감당하지 못하다	—
-고쟈	-하고 싶다	소망·희망
-고져	-하고 싶다	소망·희망
고쳐	다시·거듭	고텨와 연결
고텨	다시·거듭	고쳐와 연결
곧	장소·자리	꽃을 뜻하는 곶·곳과 구별
-곰	앞말의 뜻을 강조함(강세 접미사 용법)	이 편에서는 강조 기능을 살핌
곰ᄇᆡ	뒤	님ᄇᆡ·림ᄇᆡ: 앞
곳	꽃	장소의 뜻으로 자동 해석하지 않는다
곶	꽃	곳과 연결
괴다	사랑하다	—
금수(錦繡)	수놓은 비단 → 비단처럼 곱게 물든 산천	단풍 든 가을 산을 가리킬 때가 많지만, 꽃이 핀 봄 산천을 가리킬 수도 있으므로 문맥으로 계절을 확인합니다.
긋	끝	긋다(끊어지다)와 품사 구별
긋다	끊어지다·그치다	귿다와 연결
귿다	끊어지다·그치다	긋다와 연결
-ㄴ다	주어가 2인칭일 때의 의문 용법	현대 평서형 -ㄴ다와 구별
-ㄴ뎌	-구나··도다 등 감탄	종결과 문맥을 함께 읽는다

옛 표기	뜻	문맥에서 확인할 점
ᄂᆞ래	날개	ᄂᆞᆯ애와 연결
ᄂᆞᆯ애	날개	ᄂᆞ래와 연결
낫브다	부족하다	현대어 ‘나쁘다’로 단정하지 않는다
냑돗다	영리하다·약다	—
-녀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	실제 질문인지 설의인지 다시 판단
녀다	가다; 지나다·살아가다	두음 법칙만 적용해 ‘여다’로 바꾸지 않는다
녀름	여름 계절	여름: 열매
녜	옛날	—
녹양	푸른 버들: 봄의 단서	소재만으로 계절·정서를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녹음	짙은 나무 그늘: 여름의 단서	소재만으로 계절·정서를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뇨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	실제 질문인지 설의인지 다시 판단
늣기다	흐느끼다	현대어 ‘느끼다’로 자동 해석하지 않는다
ᄂᆡᆷᄇᆡ	앞	ᄀᆞᆷᄇᆡ: 뒤
ᄃᆞ려	상대를 나타냄	문장 관계로 판단
다호라	같구나	—
다히	쪽·방향	문장 관계로 판단
도곤	비교의 기준을 나타냄	누구·무엇과 비교하는지 확인
도화	복사꽃: 봄의 단서	소재만으로 계절·정서를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동풍	동쪽 바람; 문맥에서 봄바람	소재만으로 계절·정서를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됴타	좋다	깨끗하다는 뜻의 조타와 구별
둏다	좋다	됴타와 연결
두견화	진달래꽃: 봄의 단서	소재만으로 계절·정서를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듣다	떨어지다	‘소리를 듣다’와 문맥으로 구별
듯다	떨어지다	듣다와 연결
-ᄅᆞ샤	-구나··도다 등 감탄	종결과 문맥을 함께 읽는다
-ᄅᆞ셔	-구나··도다 등 감탄	종결과 문맥을 함께 읽는다

옛 표기	뜻	문맥에서 확인할 점
-ㄹ셰라	-할까 두렵다	문맥에서 염려를 확인
-ㄹ시	까닭·이유를 잇는 연결 어미	문장 중간에서 '~므로'로 풀이
-ㄹ씨	까닭·이유를 잇는 연결 어미	문장 중간에서 '~므로'로 풀이
라와	비교의 기준을 나타냄	누구·무엇과 비교하는지 확인
림뷔	앞	님뷔의 이형태; 곰뷔: 뒤
마초아	마침	모쳐라와 연결
믈다	마름질하다·재단하다	첫 글자의 모음은 아래아(·)
머흘다	험하다	받침 ㄹ에 유의
모쳐라	마침	마초아와 연결
무ᄉᆞ	무슨	무슴과 연결
무슴	무슨	무ᄉᆞ와 연결
무심하다	욕심·잡념이 없다	문맥에 따라 마음이 없다는 다른 뜻도 살핀다
믜다	미워하다	—
백구	갈매기	자연 속 삶과 연결되기도 하며 문맥으로 판단
백설	흰 눈: 겨울의 단서	소재만으로 계절·정서를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버히다	베다	—
벼기다	우기다·모함하다	첫 음절 모음 ㅕ에 유의
삭풍	매서운 북풍: 겨울의 단서	소재만으로 계절·정서를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ᄉᆞᆸ다	윗사람에게 말씀을 올리다	—
삼기다	생기다·태어나다·만들다	문장 속 주체와 대상을 보고 뜻을 고른다
새오다	질투하다	—
선ᄒᆞ다	서운하다	현대어 '선하다'와 구별
세우	가는 비: 봄의 단서	소재만으로 계절·정서를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손ᄃᆡ	상대를 나타냄	문장 관계로 판단
수이	쉽게	—
슬믜다	싫고 밉다	—

옛 표기	뜻	문맥에서 확인할 점
슬ᄀᆞ장	실컷	슬ᄀᆞ지와 연결
슬ᄀᆞ지	실컷	슬ᄀᆞ장과 연결
슬허ᄒᆞ다	슬퍼하다	—
싀여디다	사라지다·죽어 없어지다	첫 음절의 표기에 유의
실솔	귀뚜라미: 가을의 단서	소재만으로 계절·정서를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씌우다	꺼리다	현대어 '모자를 씌우다'로 단정하지 않는다
아ᄒᆡ	아이	—
애	장소·시간의 부사격 조사로 쓰임(현대어 '에')	다른 용법과 구별하여 문장 속 관계를 확인
어리다	어리석다	현대의 나이 어림과 구별
어엿브다	불쌍하다	예쁘다로 자동 대응하지 않는다
어와	감탄하는 말	어즈버와 연결
어즈버	감탄하는 말	어와와 연결
에	장소·시간의 부사격 조사로 쓰임(현대어 '에')	다른 용법과 구별하여 문장 속 관계를 확인
여름	열매	녀름: 여름 계절
여ᄒᆡ다	이별하다·헤어지다	아래아가 든 표기를 유지
여희다	이별하다·헤어지다	여ᄒᆡ다와 연결
예	장소·시간의 부사격 조사로 쓰임(현대어 '에')	다른 용법과 구별하여 문장 속 관계를 확인
오뎐되다	방정맞다	—
외다	그르다·틀리다	—
우움	웃음	—
우희	시간 뒤에서는 전에; 공간·사물 뒤에서는 위에	우ㅎ(위) + 의(부사격 조사). '희'를 하나의 조사로 외우지 않음. 시간 표현 뒤는 문맥으로 확인
은산	눈 덮인 산: 겨울의 단서	소재만으로 계절·정서를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의	장소·시간의 부사격 조사로 쓰임(현대어 '에')	다른 용법과 구별하여 문장 속 관계를 확인

옛 표기	뜻	문맥에서 확인할 점
이화	배꽃: 봄의 단서	소재만으로 계절·정서를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잇가	-ㅂ니까··습니까	상대를 높임
-잇고	-ㅂ니까··습니까	상대를 높임
자규	두견새	정한의 소재가 될 수 있지만 정서는 문맥으로 판단
ᄌᆞ로	자주	아래아를 유지
쟐다	짧다	—
저허ᄒᆞ다	두려워하다	—
져근덧	잠시 동안·잠깐	—
졈다	젊다·어리다	어리다: 어리석다
조타	깨끗하다	조ᄒᆞ다와 연결
조ᄒᆞ다	깨끗하다	좋다는 뜻의 됴타와 구별
좋다	깨끗하다	둏다와 구별
즈믄	천(千)	—
ᄏᆞ니와	앞 내용을 인정하며 다음 내용을 이음	문맥에 맞춰 연결
하	매우	정도 부사; 부름의 조사 ‘하’와 구별
하	높여 부르는 호격 조사 (현대어 ‘~이시여’)	정도 부사 ‘하(매우)’와 구별
하다	많다·크다	ᄒᆞ다: 하다
ᄒᆞ다	하다	하다: 많다·크다
ᄒᆞ마	이미·벌써	—
하운	여름 구름: 여름의 단서	소재만으로 계절·정서를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행화	살구꽃: 봄의 단서	소재만으로 계절·정서를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헌ᄉᆞᄒᆞ다	야단스럽다	—
헴	생각·걱정	혬·혜음과 연결
혀다	켜다·연주하다·당기다	목적어에 맞게 뜻을 고른다

옛 표기	뜻	문맥에서 확인할 점
혜음	생각·걱정	헴·혬과 연결
혬	생각·걱정	헴·혜음과 연결
황운	누렇게 익은 곡식을 비유할 때 가을의 단서	소재만으로 계절·정서를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 계절 어휘는 계절을 살피는 단서입니다. 세우·황운·금수 등은 문맥에 따라 쓰임이 달라지며, 소재만으로 정서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빠른 정답

문항	정답	문항	정답	문항	정답	문항	정답
Q01	④	Q02	④	Q03	①	Q04	④
Q05	④	Q06	③	Q07	①	Q08	①
Q09	②	Q10	②	Q11	④	Q12	④
Q13	②	Q14	②	Q15	①	Q16	④
Q17	②	Q18	③	Q19	②	Q20	④
Q21	③	Q22	②	Q23	③	Q24	②
Q25	①	Q26	③	Q27	②	Q28	④
Q29	②	Q30	①	Q31	③	Q32	②
Q33	④	Q34	③	Q35	③	Q36	②
Q37	①	Q38	②	Q39	③	Q40	①
Q41	④	Q42	사룸 + 이 → 사람이	Q43	㉠ 우국지정 · ㉡ 연군지정	Q44	가난 + 도리를 지키는 즐거움
Q45	㉠ · 생계 걱정은 남아 있음	Q46	①	Q47	③	Q48	①
Q49	③	Q50	①	Q51	④	Q52	①
Q53	③	Q54	①	Q55	①	Q56	④
Q57	③	Q58	④	Q59	③	Q60	③
Q61	②						

정답과 해설

해설 표의 ○**는 그 문항에서 골라야 할 정답 선지,** ⊗**는 고르지 않아야 할 선지**를 뜻합니다. 부정 발문에서는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근거가 부족한 선지에 ○가 붙습니다.

A01 정답 ④

판단의 핵심 말하는 주체와 부정 표현을 함께 읽습니다.

선지	정답 여부	판단 근거
①	⊗	상대의 말이나 약속은 제시되지 않았다.
②	⊗	소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상대의 마음을 알 수는 없다.
③	⊗	만났다는 사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④	○	'나는 … 잊지 않으리'가 화자의 다짐이다.

← 문항 Q01 · 개념 다시 보기: E01

A02 정답 ④

판단의 핵심 낱말만 떼어 읽지 말고 문장 끝까지 확인합니다.

선지	정답 여부	판단 근거
①	⊗	밤 자체가 두려움의 근거는 아니다.
②	⊗	부정 표현은 뜻을 바꾸는 핵심 단서이다.
③	⊗	부정과 소망을 빼면 문장 의미가 달라진다.
④	○	부정과 소망을 모두 살려야 한다.

← 문항 Q02 · 개념 다시 보기: E01 · E22

A03 정답 ①

판단의 핵심 이어 적힌 받침의 자리를 되짚습니다.

선지	정답 여부	판단 근거
①	○	받침 ㅁ을 앞말에 되돌리면 바롬과 조사 애가 확인된다.
②	✕	원래 표기에 없는 조사를 덧붙인다.
③	✕	'매'를 조사로 나누면 제시된 어휘 정보와 맞지 않는다.
④	✕	바람을 뜻하는 낱말의 일부만 남기게 된다.

← 문항 Q03 · 개념 다시 보기: E02

A04 정답 ④

판단의 핵심 표기의 대응과 낱말의 뜻을 함께 살핍니다.

선지	정답 여부	판단 근거
①	✕	옛 모음 글자를 임의로 지우면 낱말을 읽는 근거가 사라진다.
②	✕	ᄀᆞ롬과 ᄒᆞ마의 뜻을 이 방법만으로 얻을 수 없다.
③	✕	ᄀᆞ롬 등은 조사 자체가 아니다.
④	○	세 예의 대응이 다르므로 낱말과 문맥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 문항 Q04 · 개념 다시 보기: E02 · E03

A05 정답 ④

판단의 핵심 소리의 유사성은 확인할 단서이지 모든 뜻을 푸는 규칙은 아닙니다.

선지	정답 여부	판단 근거
①	✕	모음 대응과 낱말 전체의 뜻도 확인해야 한다.
②	✕	제시된 뜻이 '좋다'와 '깨끗하다'로 다르다.
③	✕	어휘 정보에서 '믈'과 '물'의 대응을 제시했다.
④	○	'여다'로 기계적으로 바꾸어서는 뜻을 알 수 없다.

← 문항 Q05 · 개념 다시 보기: E03

A06 정답 ③

판단의 핵심 비슷한 소리라도 뜻을 바꾸어 넣지 않습니다.

선지	정답 여부	판단 근거
①	✗	두 어휘의 뜻을 서로 바꾸었다.
②	✗	'조타'의 뜻은 이 문항에서 '깨끗하다'로 제시되었다. 모양이 닮았다고 두 뜻을 합칠 수 없다.
③	○	각 낱말에 제시된 뜻을 문장에 적용한 풀이이다.
④	✗	옛말로 제시된 '조타'는 '깨끗하다'라는 뜻이다. 오자로 보고 현대어로 바꾸면 뜻이 달라진다.

← 문항 Q06 · 개념 다시 보기: E03 · E04

A07 정답 ①

판단의 핵심 대상의 처지와 옛말의 뜻을 연결합니다.

선지	정답 여부	판단 근거
①	○	'굶주린'이라는 처지와 '불쌍하다'는 뜻이 연결된다.
②	✗	'어리다'의 옛 뜻과 혼동했다.
③	✗	굶주림이 해결되었다는 내용은 없다.
④	✗	현대어의 비슷한 소리로 뜻을 바꾸었다.

← 문항 Q07 · 개념 다시 보기: E04

A08 정답 ①

판단의 핵심 현대어와 모양이 같아도 문맥에 맞는 옛 뜻을 살립니다.

선지	정답 여부	판단 근거
①	○	'익는' 대상과 처마 끝의 움직임을 어휘 뜻에 맞게 풀이했다.
②	✕	두 낱말을 모두 현대의 다른 뜻으로 읽었다.
③	✕	비나 열매 자체가 슬픔을 확정하는 근거는 아니다.
④	✕	제시된 '듣다'는 떨어지다이므로 의인 표현의 근거가 아니다.

← 문항 Q08 · 개념 다시 보기: E04

A09 정답 ②

판단의 핵심 비교·전달·부름을 구별합니다.

선지	정답 여부	판단 근거
①	✕	'손ᄃᆡ'는 상대를 나타내는 '에게'이다.
②	○	'도곤'은 비교 기준을 나타낸다.
③	✕	'님하'의 '하'는 임을 높여 부르는 호격 조사이다.
④	✕	비교 관계를 전달 관계로 바꾸었다.

← 문항 Q09 · 개념 다시 보기: E05

A10 정답 ②

판단의 핵심 같은 모양의 말도 놓인 자리와 관계를 확인합니다.

선지	정답 여부	판단 근거
①	✕	이미·벌써를 뜻하는 'ᄒᆞ마'와 다르다.
②	○	㉠은 님 뒤에, ㉡은 슬프다는 말 앞에 놓였다.
③	✕	비교를 나타내는 도곤·라와의 기능이 아니다.
④	✕	두 문장의 기능을 뒤바꾸었다.

← 문항 Q10 · 개념 다시 보기: E05

A11 정답 ④

판단의 핵심 바람과 실현을 구별합니다.

선지	정답 여부	판단 근거
①	✗	소망을 이미 이루어진 사건으로 바꾸었다.
②	✗	상대가 한 행동이나 약속은 없다.
③	✗	소망의 내용을 반대로 읽었다.
④	○	소망의 어미가 재회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낸다.

← 문항 Q11 · 개념 다시 보기: E06

A12 정답 ④

판단의 핵심 어미의 작은 차이가 문장의 뜻을 바꿉니다.

선지	정답 여부	판단 근거
①	✗	㉡은 이유를 나타내며 소망은 -고져 등으로 확인한다.
②	✗	염려만으로 사건의 발생을 확정할 수 없다.
③	✗	㉠은 염려이며, 감탄도 반드시 기쁨만 나타내지는 않는다.
④	○	제시된 세 기능을 구별한 설명이다.

← 문항 Q12 · 개념 다시 보기: E06

A13 정답 ②

판단의 핵심 계절과 정서는 별도의 근거로 확인합니다.

선지	정답 여부	판단 근거
①	✗	도화는 복사꽃이다.
②	○	‘봄날’과 ‘그대 없는 … 쓸쓸하다’가 각각 계절과 정서의 근거이다.
③	✗	‘쓸쓸하다’와 반대되며 이별을 잊었다는 근거도 없다.
④	✗	정서를 근거로 명시된 계절을 바꾸었다.

← 문항 Q13 · 개념 다시 보기: E07

A14 정답 ②

판단의 핵심 관습적인 계절 연결도 문맥과 함께 사용합니다.

선지	정답 여부	판단 근거
①	✗	가는 비는 다른 계절에도 내릴 수 있다.
②	○	어휘의 여러 뜻 가운데 실제 문맥의 의미를 확인한다.
③	✗	금수는 비단처럼 곱게 물든 산천을 가리키며, 가을 단풍뿐 아니라 봄의 꽃 핀 산천도 가리킬 수 있다.
④	✗	계절·풍경의 단서와 화자의 정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문항 Q14 · 개념 다시 보기: E07

A15 정답 ①

판단의 핵심 소재의 존재와 상징 해석을 구별합니다.

선지	정답 여부	판단 근거
①	○	해는 아침의 실제 빛으로 제시되며 임금과 연결할 근거는 없다.
②	✗	일상 행동을 충성과 연결할 근거가 없다.
③	✗	궁궐·신하·추방의 정보가 제시되지 않았다.
④	✗	관습적 의미를 모든 용례에 강제로 적용했다.

← 문항 Q15 · 개념 다시 보기: E08

A16 정답 ④

판단의 핵심 전형적인 자연 소재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먼저 확인합니다.

선지	정답 여부	판단 근거
①	✗	‘끼니가 걱정’이라는 분명한 근거를 지웠다.
②	✗	걱정의 해결은 제시되지 않았다.
③	✗	어획량(잡은 물고기의 양)이 적은 원인이나 수탈 행위는 제시되지 않았다.
④	○	그물·어획량(잡은 물고기의 양)과 아이들 끼니 걱정이 연결된다.

← 문항 Q16 · 개념 다시 보기: E08 · E17

A17 정답 ②

판단의 핵심 걱정과 그리움이 무엇을 향하는지 봅니다.

선지	정답 여부	판단 근거
①	✗	부모 사후의 후회나 늙음에 대한 한탄이 없다.
②	○	㉠은 나라 형편의 걱정, ㉡은 임금을 향한 그리움이다.
③	✗	두 마음의 초점을 뒤바꾸었다.
④	✗	현재 삶의 만족이나 자연과 하나 됨을 말하지 않는다.

← 문항 Q17 · 개념 다시 보기: E09

A18 정답 ③

판단의 핵심 〈보기〉의 대상 정보와 본문의 다짐을 함께 읽습니다.

선지	정답 여부	판단 근거
①	✗	복귀나 부름의 사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②	✗	이 문항이 제공한 대상 정보를 무시했다.
③	○	임금이라는 대상 정보와 '저버리지 않으리'라는 다짐이 연결된다.
④	✗	부정된 행동을 실제로 한 행동으로 바꾸었다.

← 문항 Q18 · 개념 다시 보기: E09 · E22

A19 정답 ②

판단의 핵심 풍수지탄은 부모 사후의 못다 한 효도를 한탄하는 마음입니다.

선지	정답 여부	판단 근거
①	✗	부모의 사망과 효도를 못한 후회가 제시되지 않았다.
②	○	부모 사후와 못다 한 효도의 후회가 함께 있다.
③	✗	부모가 살아 계시며 사후의 한탄이 아니다.
④	✗	자신의 늙음을 한탄하는 탄로와 관련된다.

← 문항 Q19 · 개념 다시 보기: E10

A20 정답 ④

판단의 핵심 살아 계신 부모를 향한 효도와 부모 사후의 한탄을 구별합니다.

선지	정답 여부	판단 근거
①	✗	'보내리라'가 앞으로의 뜻을 나타내므로 본문과 맞는다.
②	✗	겨울옷을 보내려는 행동에 효도의 마음이 드러나므로 적절한 해석이다.
③	✗	본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이다.
④	○	아버지가 살아 계시므로 풍수지탄으로 읽을 수 없다.

← 문항 Q20 · 개념 다시 보기: E10

A21 정답 ③

판단의 핵심 피해를 낳은 행위와 그 피해를 바라보는 마음을 함께 읽습니다.

선지	정답 여부	판단 근거
①	✗	늙음 한탄이나 부모 사후의 효도 후회가 없다.
②	✗	자연과 하나 되는 경지나 임금에 대한 그리움이 없다.
③	○	부당한 반복 징수와 백성의 고통을 걱정하는 마음이 함께 있다.
④	✗	가난을 즐기거나 자연·예술을 즐기는 내용이 없다.

← 문항 Q21 · 개념 다시 보기: E11

A22 정답 ②

판단의 핵심 비슷한 고통이라도 원인과 평가를 구별합니다.

선지	정답 여부	판단 근거
①	✗	㉠의 가뭄을 관리의 수탈로 바꾸었다.
②	○	㉠의 피해 원인은 가뭄, ㉡은 사익을 위한 빼앗음이다.
③	✗	'가엾다'와 반대되는 해석이다.
④	✗	'그릇되다'라는 비판을 예찬으로 바꾸었다.

← 문항 Q22 · 개념 다시 보기: E11 · E19

A23 정답 ③

판단의 핵심 상징의 대상과 그 대상을 비판하는 말을 함께 확인합니다. 정치 현실 비판을 모두 수탈 고발로 좁히지 않습니다.

선지	정답 여부	판단 근거
①	✗	권력자가 백성의 재물을 빼앗는 행위는 제시되지 않았다.
②	✗	임금을 상징하는 해는 있지만, 떨어져 지냄이나 다시 만나려는 그리움의 말은 없다.
③	○	〈보기〉의 상징과 본문의 '어둡구나', '원망스럽다'를 연결하면 정치의 잘못에 대한 비판을 읽을 수 있다.
④	✗	해와 뜬구름의 의미를 밝힌 〈보기〉를 반영하지 않은 해석이다.

← 문항 Q23 · 개념 다시 보기: E08 · E11 · E22

A24 정답 ②

판단의 핵심 자연·예술·여유를 보여 주는 구체적인 행동을 읽습니다.

선지	정답 여부	판단 근거
①	✗	대가나 생계 목적 없이 자연과 음악을 즐긴다.
②	○	바람을 즐김·거문고·서두르지 않음이 함께 근거가 된다.
③	✗	노동의 대가나 수탈·분노는 없다.
④	✗	부모나 효도의 후회는 제시되지 않았다.

← 문항 Q24 · 개념 다시 보기: E12

A25 정답 ①

판단의 핵심 장소보다 행동의 목적과 태도를 확인합니다.

선지	정답 여부	판단 근거
①	○	생계를 위한 절박한 노동으로 읽히며 여유로운 태도의 근거는 부족하다.
②	✕	느긋함과 얽매임에서 벗어남이 제시된다.
③	✕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거니는 태도가 제시된다.
④	✕	'서두를 일 없어', '한가롭게'가 여유의 근거이다.

← 문항 Q25 · 개념 다시 보기: E12 · E17

A26 정답 ③

판단의 핵심 가난만이 아니라 도리와 즐거움을 확인합니다.

선지	정답 여부	판단 근거
①	✕	재물의 많음을 추구하는 태도로 안빈낙도와 다르다.
②	✕	풍수지탄의 근거이다.
③	○	가난한 생활과 도리를 지키는 즐거움이 함께 있다.
④	✕	가난은 있으나 도리를 지키며 즐기는 태도는 없다.

← 문항 Q26 · 개념 다시 보기: E13

A27 정답 ②

판단의 핵심 안분지족에는 가난이 반드시 전제되지 않습니다.

선지	정답 여부	판단 근거
①	✕	절망하거나 삶을 포기한다는 내용은 없다.
②	○	더 탐내지 않음과 현재 삶의 만족이 명시된다.
③	✕	현재 가난하다는 내용과 도를 즐긴다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④	✕	나이와 늙음에 대한 한탄은 없다.

← 문항 Q27 · 개념 다시 보기: E13

A28 정답 ④

판단의 핵심 호감·감정 이입과 자연과의 하나 됨을 구별합니다.

선지	정답 여부	판단 근거
①	✗	대상이 화자의 슬픔을 함께 느끼도록 표현한 감정 이입이다.
②	✗	실용적 판단이며 자연과 하나 되는 경지가 아니다.
③	✗	자연에 대한 호감이지만 하나 됨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	나와 자연의 경계가 사라진 듯한 경지를 말한다.

← 문항 Q28 · 개념 다시 보기: E14

A29 정답 ②

판단의 핵심 표현이 보여 주는 관계를 기준으로 구별합니다.

선지	정답 여부	판단 근거
①	✗	하나가 된 듯한 경지를 실제 변신 사건으로 단정했다.
②	○	㉠은 공유된 슬픔, ㉡은 나와 숲의 구별을 잊음이 근거이다.
③	✗	두 표현의 중심 관계를 반대로 읽었다.
④	✗	슬픔의 공유와 하나 됨을 각각 표현한다.

← 문항 Q29 · 개념 다시 보기: E14

A30 정답 ①

판단의 핵심 '병'에 빗댄 대상이 자연을 향한 마음인지 봅니다.

선지	정답 여부	판단 근거
①	○	고치지 못한다는 말이 자연애의 깊이와 연결된다.
②	✗	'고치지 못하리' 및 산천을 향한 마음과 반대된다.
③	✗	자연애를 나타내는 비유이지 구체적인 진단이 아니다.
④	✗	자연을 향한 깊은 마음을 혐오로 바꾸었다.

← 문항 Q30 · 개념 다시 보기: E15

A31 정답 ③

판단의 핵심 자연애가 곧 완전한 현실 단절은 아닙니다.

선지	정답 여부	판단 근거
①	✗	관심의 구체적 이유를 명예욕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다.
②	✗	천석고황의 뜻과 맞지 않는다.
③	○	천석고황과 나라 소식에 귀 기울임이 함께 제시된다.
④	✗	뒷부분의 나라 소식에 대한 관심을 지웠다.

← 문항 Q31 · 개념 다시 보기: E15 · E16

A32 정답 ②

판단의 핵심 공간과 마음의 방향을 구별합니다.

선지	정답 여부	판단 근거
①	✗	산골에 집을 지었다는 공간 정보와 맞지 않는다.
②	○	집은 산골에 있지만 기다리는 것은 조정 소식이다.
③	✗	‘조정 소식’을 기다리는 행동과 반대된다.
④	✗	적군이나 전쟁의 사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 문항 Q32 · 개념 다시 보기: E16

A33 정답 ④

판단의 핵심 한 작품의 두 마음을 하나로 지우지 않습니다.

선지	정답 여부	판단 근거
①	✗	문제 해결은 없고 오히려 잠을 깬다.
②	✗	뒷문장의 걱정을 지웠다.
③	✗	앞문장의 마음이 맑아짐을 지웠다.
④	○	앞문장의 맑아짐과 뒷문장의 나라 걱정을 모두 읽었다.

← 문항 Q33 · 개념 다시 보기: E16 · E21

A34 정답 ③

판단의 핵심 자연 속 행동의 목적을 확인합니다.

선지	정답 여부	판단 근거
①	✗	밤새 물을 나르는 행동과 반대된다.
②	✗	아직 거두어야 할 곡식을 말하며 수확이 완료되지 않았다.
③	○	물 나르는 노동이 가족의 식량 마련과 연결된다.
④	✗	임금이나 그리움의 근거가 없다.

← 문항 Q34 · 개념 다시 보기: E17

A35 정답 ③

판단의 핵심 노동과 자연의 즐거움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선지	정답 여부	판단 근거
①	✗	밭 매기라는 행동을 지웠다.
②	✗	짧은 장면을 화자의 일생 전체로 넓혔다.
③	○	밭 매기·남은 일과 산빛 즐김이 모두 제시된다.
④	✗	일과 감상이 함께 가능하다는 점을 놓쳤다.

← 문항 Q35 · 개념 다시 보기: E17 · E12

A36 정답 ②

판단의 핵심 늙음의 소재와 늙음에 대한 한탄을 함께 확인합니다.

선지	정답 여부	판단 근거
①	✗	임의 부재로 인한 그리움이며 늙음에 관한 말은 없다.
②	○	백발을 계기로 젊음의 상실을 슬퍼한다.
③	✗	흰 눈의 아름다움을 기릴 뿐 늙음의 한탄은 없다.
④	✗	늙음은 있으나 한탄하지 않고 배움의 즐거움을 말한다.

← 문항 Q36 · 개념 다시 보기: E18

A37 정답 ①

판단의 핵심 예찬하는 성질을 확인하되 배경 사건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선지	정답 여부	판단 근거
①	○	'눈서리를 견디며'와 '훌륭하구나'가 대상의 성질과 평가를 보여 준다.
②	✕	푸른 빛을 지킨다는 말과 반대된다.
③	✕	다른 모든 대상과의 비교는 제시되지 않았다.
④	✕	대상의 굳셈을 예찬하지만 임금에 대한 충성을 확정할 문맥이나 〈보기〉는 없다.

← 문항 Q37 · 개념 다시 보기: E18 · E08

A38 정답 ②

판단의 핵심 폐허만이 아니라 피해 원인도 확인합니다.

선지	정답 여부	판단 근거
①	✕	피해 원인이 홍수로 제시된다.
②	○	전쟁이 피해의 원인으로 명시되고 그 슬픔이 나타난다.
③	✕	전쟁이나 슬픔이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④	✕	전쟁 피해의 슬픔을 보여 주는 내용이 아니다.

← 문항 Q38 · 개념 다시 보기: E19

A39 정답 ③

판단의 핵심 삶의 애환을 읽되 작은 기쁨을 모든 문제의 해결로 넓히지 않습니다.

선지	정답 여부	판단 근거
①	✕	한 끼의 기쁨만으로 장기적인 생계 해결을 확정할 수 없다.
②	✕	궁핍과 품팔이·한숨을 지웠다.
③	○	빈 쌀독·한숨과 죽을 나눈 이웃·웃음이 각각 근거이다.
④	✕	이웃은 양식을 빼앗지 않고 나누어 주었다.

← 문항 Q39 · 개념 다시 보기: E19

A40 정답 ①

판단의 핵심 사랑과 기다림을 상대에 대한 원망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선지	정답 여부	판단 근거
①	○	상대의 안녕과 다시 만남을 바란다고 직접 말한다.
②	✕	재회는 아직 바라는 일이다.
③	✕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와 반대된다.
④	✕	상대를 탓하는 말은 제시되지 않았다.

← 문항 Q40 · 개념 다시 보기: E20

A41 정답 ④

판단의 핵심 공통된 상황과 서로 다른 정서를 나누어 읽습니다.

선지	정답 여부	판단 근거
①	✕	두 구절의 감정 내용을 뒤바꾸었다.
②	✕	두 구절 모두 이별 뒤의 상황이다.
③	✕	한 구절의 정서를 다른 구절에 덧씌웠다.
④	○	㉠은 그리움, ㉡은 '야속하다'라는 원망을 나타낸다.

← 문항 Q41 · 개념 다시 보기: E20

A42 예시 답안

예시 답안: 사룸 + 이 → 사람이.

확인할 요소: ① 사룸과 이를 나눔 ② 사람이로 풀이함. 두 요소를 모두 확인합니다.

주의할 답: '사ᄅᆞ + 미': 받침 ㅁ을 앞말에 되돌리지 못한 풀이입니다.

← 문항 Q42 · 개념 다시 보기: E02

A43 예시 답안

예시 답안: ㉠ 우국지정 — 나라의 어지러운 형편 때문에 잠을 설침. ㉡ 연군지정 — 임금을 다시 뵙고 싶어 함.

확인할 요소: 각 개념과 그에 맞는 근거를 연결합니다. 근거를 같은 뜻으로 풀어 써도 됩니다.

주의할 답: 두 문장 모두 임금에 대한 그리움이라고만 쓰면 ㉠의 나라 걱정을 구별하지 못한 답입니다.

← 문항 Q43 · 개념 다시 보기: E09 · E21

A44 예시 답안

예시 답안: ① 거친 밥과 누추한 집이라는 가난한 생활 ② 바른 도리를 배우고 지키는 즐거움.

확인할 요소: 가난의 근거와 도리를 지키며 즐기는 태도를 모두 써야 합니다.

주의할 답: '가난하다'만 쓰면 안빈낙도의 즐거움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 문항 Q44 · 개념 다시 보기: E13

A45 예시 답안

예시 답안: ㉠. '내일의 양식은 여전히 걱정'이라고 했으므로 ㉡의 생계 걱정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판단은 맞지 않는다.

확인할 요소: ㉠ 선택과 ㉡을 반박하는 생계 걱정의 근거를 모두 확인합니다.

주의할 답: 산빛을 즐기는 표현만 인용하면 ㉡이 틀린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 문항 Q45 · 개념 다시 보기: E16 · E17 · E21

A46 정답 ①

판단의 핵심 비슷한 현대어로 추측하지 말고 제공된 어휘 뜻을 적용합니다.

선지	정답 여부	판단 근거
①	○	어휘 풀이에서 조타를 깨끗하다, 믈을 물로 제시했다.
②	✕	ᄌᆞ로는 자주라는 뜻이다.
③	✕	'없다'는 부정을 반대로 읽었다.
④	✕	'하노매라'는 많구나이며 'ᄒᆞ마'의 뜻과 다르다.

← 문항 Q46 · 개념 다시 보기: E03 · E04 · E22

A47 정답 ③

판단의 핵심 대조되는 대상의 성질과 예찬 대상의 성질을 구별합니다.

선지	정답 여부	판단 근거
①	✗	소리의 크기를 비교하지 않는다.
②	✗	구름에 대한 내용을 물에 옮겼다.
③	○	구름은 자주 검어지고 바람은 자주 그치지만 물은 깨끗하고 그칠 때가 없다고 한다.
④	✗	(가)의 기준은 깨끗함과 그치지 않음이며, 눈서리를 견딤은 (나) 소나무의 성질이다.

← 문항 Q47 · 개념 다시 보기: E18 · E21

A48 정답 ①

판단의 핵심 의문형의 문법 기능과 설의적 의도를 함께 읽습니다.

선지	정답 여부	판단 근거
①	○	'어찌 … 모르느냐'는 표현이 소나무의 변치 않는 성질에 주목하게 한다.
②	✗	소나무의 변치 않는 성질을 질문 형식으로 강조한 설의이다. 답을 얻기 위한 실제 질문이 아니다.
③	✗	이 구절의 -ㄴ다는 의문 용법이며 풀이에도 모르느냐로 제시했다.
④	✗	눈서리를 모르는 듯 견디는 소나무의 성질과 반대된다.

← 문항 Q48 · 개념 다시 보기: E06 · E18

A49 정답 ③

판단의 핵심 예찬을 확인한 뒤에도 본문에 없는 역사적 사건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선지	정답 여부	판단 근거
①	✗	(나)의 표현과 맞으므로 적절하다.
②	✗	구름·바람과 물, 꽃·잎과 소나무의 비교가 있어 적절하다.
③	○	임금의 부름이나 궁궐 복귀 사건은 어느 수에도 제시되지 않았다.
④	✗	물과 소나무의 성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므로 적절한 해석이다.

← 문항 Q49 · 개념 다시 보기: E08 · E18 · E22

자료 A의 대조 구조 다시 보기

D17 오우가의 대조 구조

(가) 물을 기리는 수

구름·바람	대조	물
구름: 깨끗하나 자주 검어짐 바람 소리: 맑으나 자주 그침		깨끗함 + 그치지 않음

(나) 소나무를 기리는 수

꽃·잎	대조	소나무
꽃: 더우면 핌 잎: 추우면 짐		눈서리에도 변치 않는 성질

다른 자연물과 견주어 중심 대상을 돋보이게 함

그 성질을 높이 기리는 마음 → 찬양·예찬

A50 **정답 ①**

판단의 핵심 잠시 얻는 위안과 지속되는 걱정을 구별합니다.

선지	정답 여부	판단 근거
①	○	1행의 시름을 놓음과 4행의 나라 걱정을 모두 반영한다.
②	✕	위안과 걱정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③	✕	4행의 잠 못 이루는 상태를 지웠다.
④	✕	‘어지러운’과 ‘잠은 쉬이 오지 않는다’를 반대로 읽었다.

← 문항 Q50 · 개념 다시 보기: E09 · E16 · E21

A51 정답 ④

판단의 핵심 관습적 연결은 본문과 〈보기〉의 구체적인 근거로 확인합니다.

선지	정답 여부	판단 근거
①	✗	하늘의 말은 지문에 없다.
②	✗	관습을 모든 작품에 적용할 수는 없다.
③	✗	바라보는 방향으로 화자의 신분을 그렇게 정할 수 없다.
④	○	본문의 소망과 〈보기〉의 대상·방향 정보가 연결된다.

← 문항 Q51 · 개념 다시 보기: E08 · E09 · E22

A52 정답 ①

판단의 핵심 의지는 확인하되 상대의 반응이나 결과는 덧붙이지 않습니다.

선지	정답 여부	판단 근거
①	○	'뜻을 버리지 않으리'와 〈보기〉의 충성 정보가 연결된다.
②	✗	임금의 판단이나 반응은 제시되지 않았다.
③	✗	몸은 섬에 있으며 이동 완료가 제시되지 않았다.
④	✗	'버리지 않으리'라는 부정과 다짐을 반대로 읽었다.

← 문항 Q52 · 개념 다시 보기: E09 · E22

A53 정답 ③

판단의 핵심 자연에 있는 처지만으로 속세와의 완전한 단절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선지	정답 여부	판단 근거
①	✗	4·5행이 각각 근거이므로 적절하다.
②	✗	몸은 섬에 있고 마음은 먼 임금과 나라에 향하므로 적절하다.
③	○	나라 형편을 걱정하고 임금 소식을 기다리므로 완전한 단절이 아니다.
④	✗	2·3행과 〈보기〉에 맞는 해석이다.

← 문항 Q53 · 개념 다시 보기: E09 · E16 · E21

A54 정답 ①

판단의 핵심 어휘의 시대·문맥과 지문 전체의 전개를 함께 확인합니다.

선지	정답 여부	판단 근거
①	○	물을 길어 살린 벼와 '한숨을 덜까' 웃는 모습이 근거이다.
②	✕	물을 길어 벼를 살리고 굽은 허리를 편다는 노동의 근거가 있다.
③	✕	3·4행에서 수탈로 겨울 몫까지 빼앗긴다.
④	✕	이 창작 지문의 여름내는 여름 동안을 뜻한다. 고어의 여름 뜻을 모든 문맥에 적용하지 않는다.

← 문항 Q54 · 개념 다시 보기: E07 · E17

A55 정답 ①

판단의 핵심 피해를 낳는 주체와 행위를 정확히 읽습니다.

선지	정답 여부	판단 근거
①	○	이미 거둔 세금을 또 요구하고 겨울 몫을 실어 간다.
②	✕	1행의 벼가 익었다는 내용과 다르고, 해당 피해 원인은 수탈이다.
③	✕	관리의 요구로 빼앗긴 것이며 자발적인 선물이 아니다.
④	✕	전쟁이나 방화 사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 문항 Q55 · 개념 다시 보기: E11 · E17

A56 정답 ④

판단의 핵심 고단한 처지에서도 이웃을 헤아리는 마음과 나눔의 뜻을 읽되, 실행 결과와 구별합니다.

선지	정답 여부	판단 근거
①	✗	소망을 이미 실행한 행동으로 바꾼 해석이다.
②	✗	이웃의 빈 그릇을 마음에 두는 내용과 반대된다.
③	✗	밥을 나누려는 뜻과 자신의 양식이 넉넉하다는 판단은 다르다. 겨울 몫까지 빼앗긴 앞부분과도 맞지 않는다.
④	○	빈 그릇이 눈에 밟히고 밥을 덜어 채우고 싶다고 한다.

← 문항 Q56 · 개념 다시 보기: E06 · E19 · E22

A57 정답 ③

판단의 핵심 도덕적인 행동이 있다고 해서 가난을 즐기는 마음까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선지	정답 여부	판단 근거
①	✗	1·2행에 근거가 있어 적절하다.
②	✗	3·4행의 수탈에 근거가 있어 적절하다.
③	○	가난만으로 도리를 즐기는 태도까지 판단할 수 없으며 피해와 걱정이 중심이다.
④	✗	5·6행의 걱정과 나눔의 뜻에 근거가 있어 적절하다.

← 문항 Q57 · 개념 다시 보기: E11 · E13 · E17 · E19

A58 정답 ④

판단의 핵심 사후라는 상황과 못다 한 효도의 후회를 함께 확인합니다.

선지	정답 여부	판단 근거
①	✗	어머니의 거절이나 원망은 제시되지 않았다.
②	✗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라는 상황과 반대된다.
③	✗	슬픔의 원인은 자신의 늙음이 아니라 못다 한 효도이다.
④	○	어머니 사후, 새 옷을 미룬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이제 입힐 수 없음을 슬퍼한다.

← 문항 Q58 · 개념 다시 보기: E10

A59 정답 ③

판단의 핵심 부재·소망과 원인·실현을 구별합니다.

선지	정답 여부	판단 근거
①	✗	함께 먹음은 아직 바라는 일이다.
②	✗	부재의 원인과 상대에 대한 책망이 제시되지 않았다.
③	○	2행의 평안 기원과 3행의 재회 소망이 근거이다.
④	✗	사망이나 재회 불가능을 단정할 근거가 없다.

← 문항 Q59 · 개념 다시 보기: E20 · E22

A60 정답 ③

판단의 핵심 같은 부재라도 대상·원인·마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선지	정답 여부	판단 근거
①	✗	어느 시에도 귀환 약속은 없다.
②	✗	임금이나 신하에 관한 설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③	○	각 시의 대상·상황·감정의 근거를 구별한 해석이다.
④	✗	(가)의 자기 후회와 (나)의 사랑·소망을 뒤바꾸었다.

← 문항 Q60 · 개념 다시 보기: E10 · E20 · E21

A61 정답 ②

판단의 핵심 소재 하나로 관계와 주제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선지	정답 여부	판단 근거
①	✗	소망 표현이므로 적절하다.
②	○	공통된 생활 소재만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 및 떠난 상대와의 관계를 같게 정할 수 없다.
③	✗	1행의 사망 정보와 연결되므로 적절하다.
④	✗	(가)의 어머니 사후와 (나)의 떠난 상대라는 차이를 읽는 적절한 방법이다.

← 문항 Q61 · 개념 다시 보기: E10 · E20 · E21 · E22